

한번은 즐기자.

virus6145

소개글

목차

1	* 알기쉬운 낚시매듭법 및 어종정보 *	5
2	꼭지 낚시의 루어 선택	19
3	루어낚시-플래쉬로 보는 월에 낚시바늘 끼우기	21
4	루어-꼭지 낚시 (편글)	24
5	루어장비-그립, 월, 지그헤드, 스플릿 슛	26
6	루어장비-기본 정리	28
7	지그헤드의 이해	32
8	낚시 장비 고르기	35
9	볼락 월 루어 낚시	38
10	수심별 지그헤드 사용법	41
11	어종별 낚시방법	42
12	애깁 낚시 채비	46
13	처음하는 루어채비2	47
14	매듭 익히기20	48
15	매듭 익히기19	49
16	매듭 익히기18	50
17	매듭 익히기17	51
18	매듭 익히기16	52
19	매듭 익히기15	53
20	매듭 익히기14	54
21	매듭 익히기13	55
22	매듭 익히기12	56
23	매듭 익히기11	57
24	매듭 익히기10	58
25	매듭 익히기9	59

26	매듭 익히기8	61
27	매듭 익히기7	62
28	매듭 익히기6	64
29	매듭 익히기5	65
30	매듭 익히기4	67
31	매듭 익히기3	68
32	매듭 익히기 1	69
33	스프너의 능력!	71
34	루어시작!이정도는 준비하자	74
35	처음하는 루어채비!!	78
36	루어매듭1	80
37	루어의 모든것!! 용어 정리	82



갯바위 새벽하늘은 공평하게 밝아오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돈과 시간, 바다낚시의 중간 단계에서

갈등과 번뇌로 고민에 빠지들지만 바다낚시꾼의 신세는 결국 바다를 선택하고마는....."



라인과 훅/루어/도래을 연결할때 사용하는 매듭

유니노트(uni kn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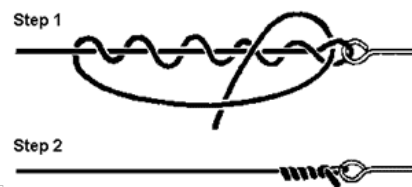
Hangman's Knot또는던컨루프매듭이라고도 합니다. 민물 견지 바다낚시에서 안둘려 묶기와 같은 매듭입니다.

0.20이하는 5회~7회 0.33이상은 3회정도 일반적으로는 4회정도 돌려 묶는것이 좋습니다

가장 강한 매듭법이며 제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

클린치노트(Clinch Knot) 짜배기 매듭



□

더블 클린치노트(HALF BLOOD KNOT)

□

GRINNER KN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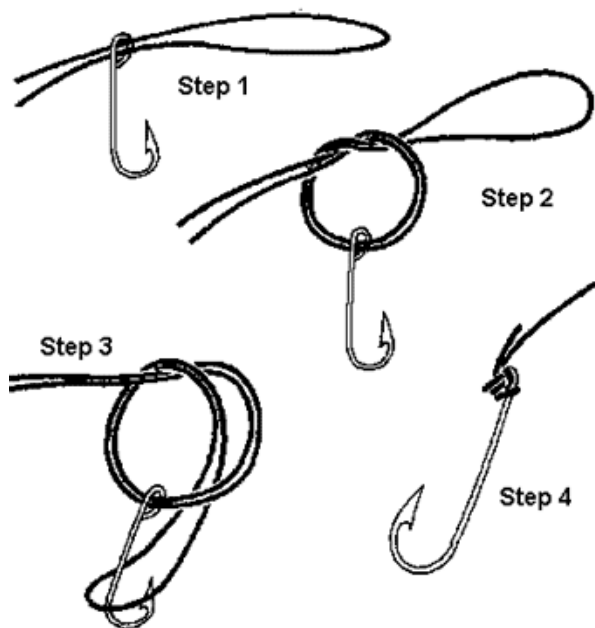
□

CENTAUNI KNOT

□

팔로마노트(Palomar knot)PALOMAR KN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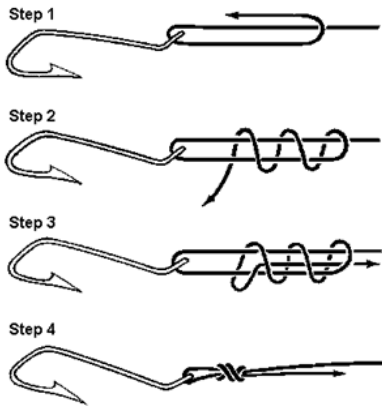
다운샷(언더/드랍샷)리그에서 싱커 위의 훅을 결합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매듭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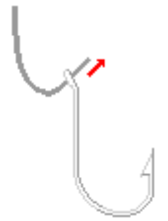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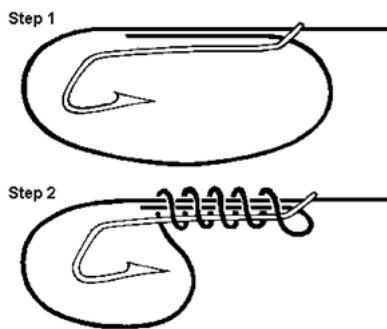
Scaffold Knot(교수형매듭:직역)

매듭 만들기가 가장 간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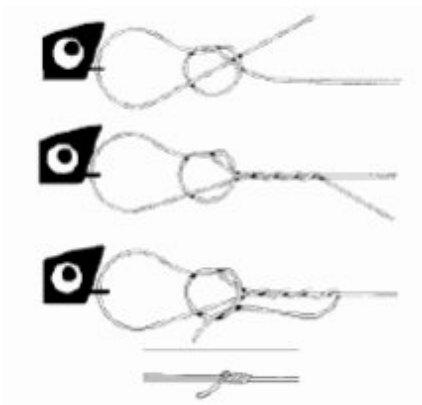
Snelling knots

이매듭 민물 바다낚시에서 바늘 묶는 매듭입니다



Thumb Knot

□ 논슬립모노루프(non sliop mono loop)



라인과 라인의 결합

plastic_coated_wire_leader KNOT

□

ALBRIGHT KNOT

가는 라인과 두꺼운 라인을 연결할때 주로 사용한다

지깅 낚시에서 쇼크리더와 PE라인을 연결할때 사용하며 플라이낚시에서 백킹라인과 플라이 라인을 연결할때 사용한다.

□

BLOOD KNOT

□

가물치낚시 매듭동영상

1년에 한번 사용할까말까...기억이 가물가물 매듭

SPIDER HITCH KNOT

□

DROP LOOP KN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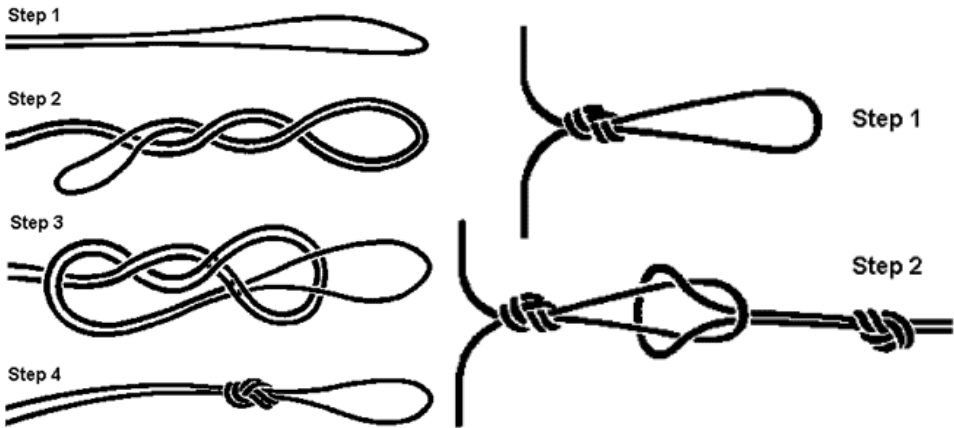
□

DOUBLE SWIVEL KNOT

□

BLOOD NIGHT KN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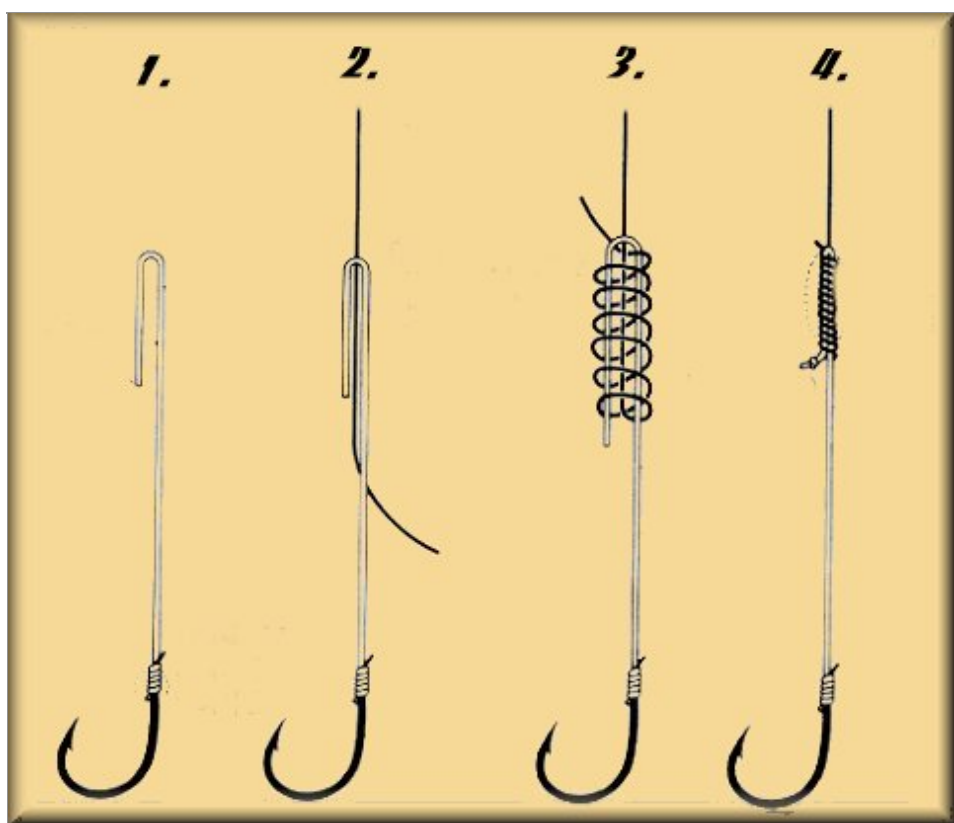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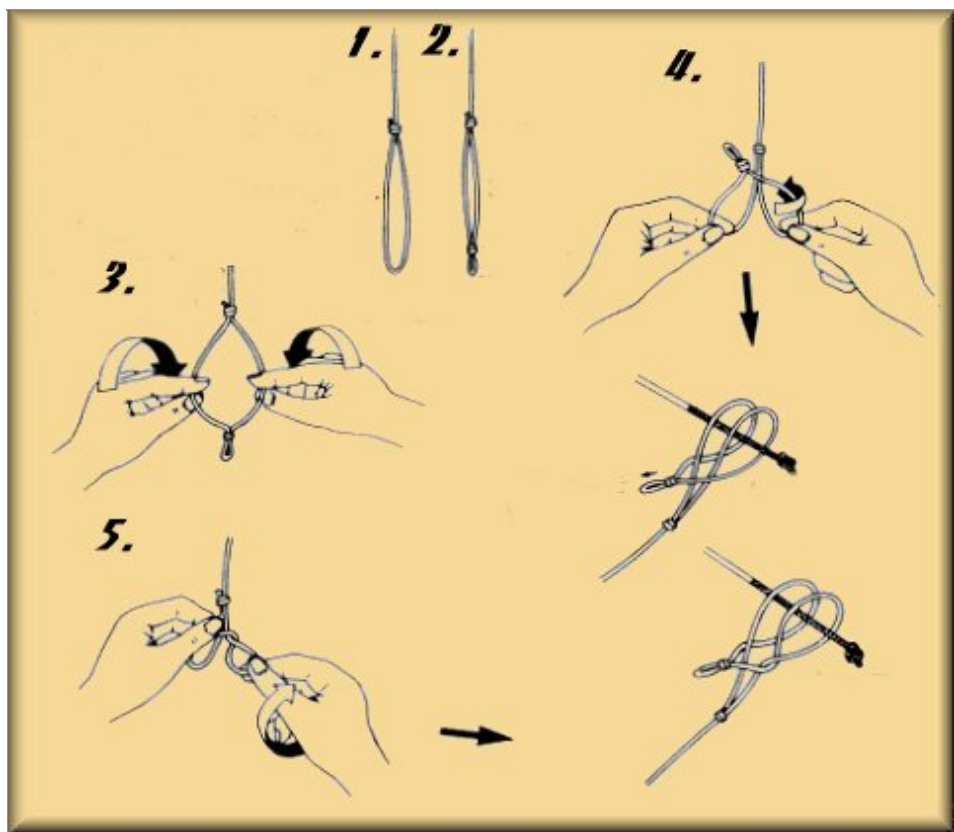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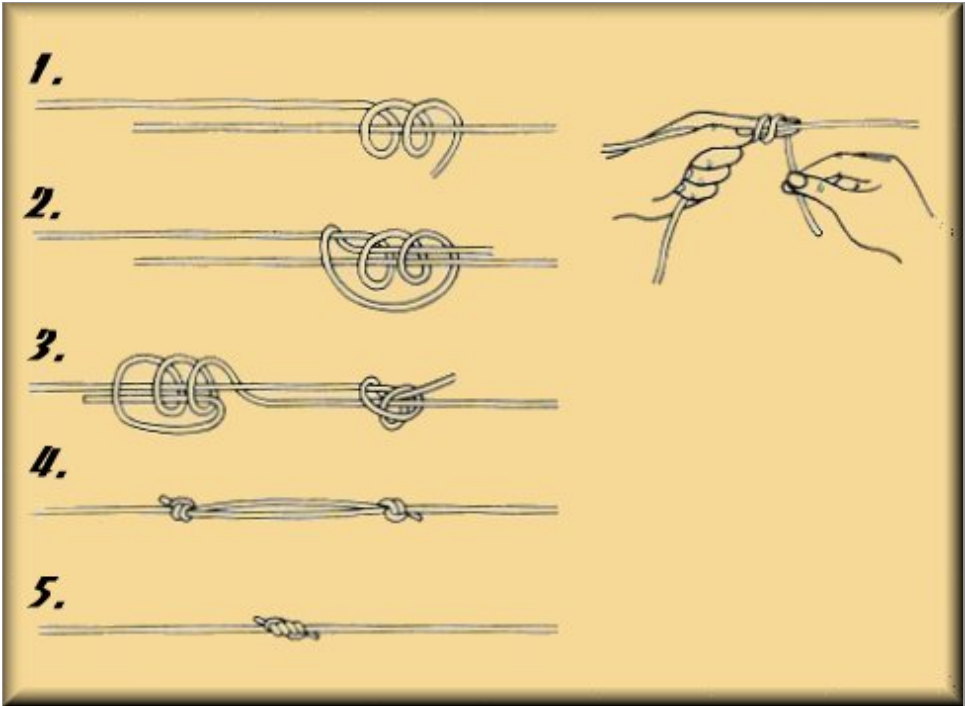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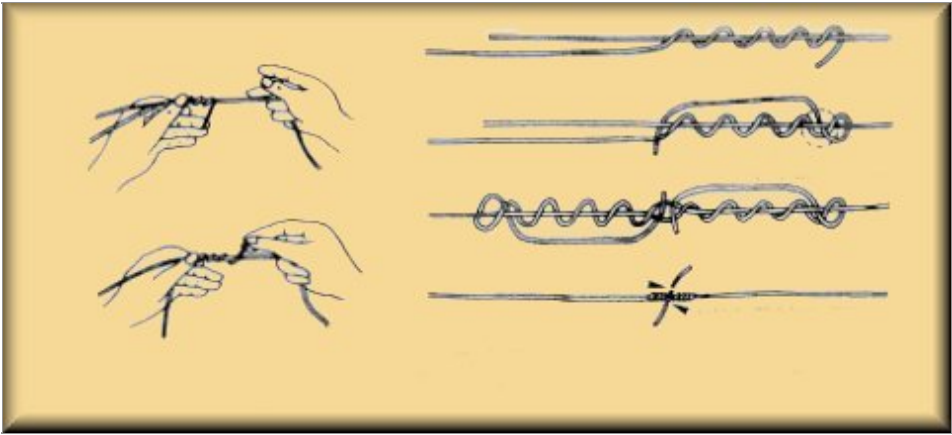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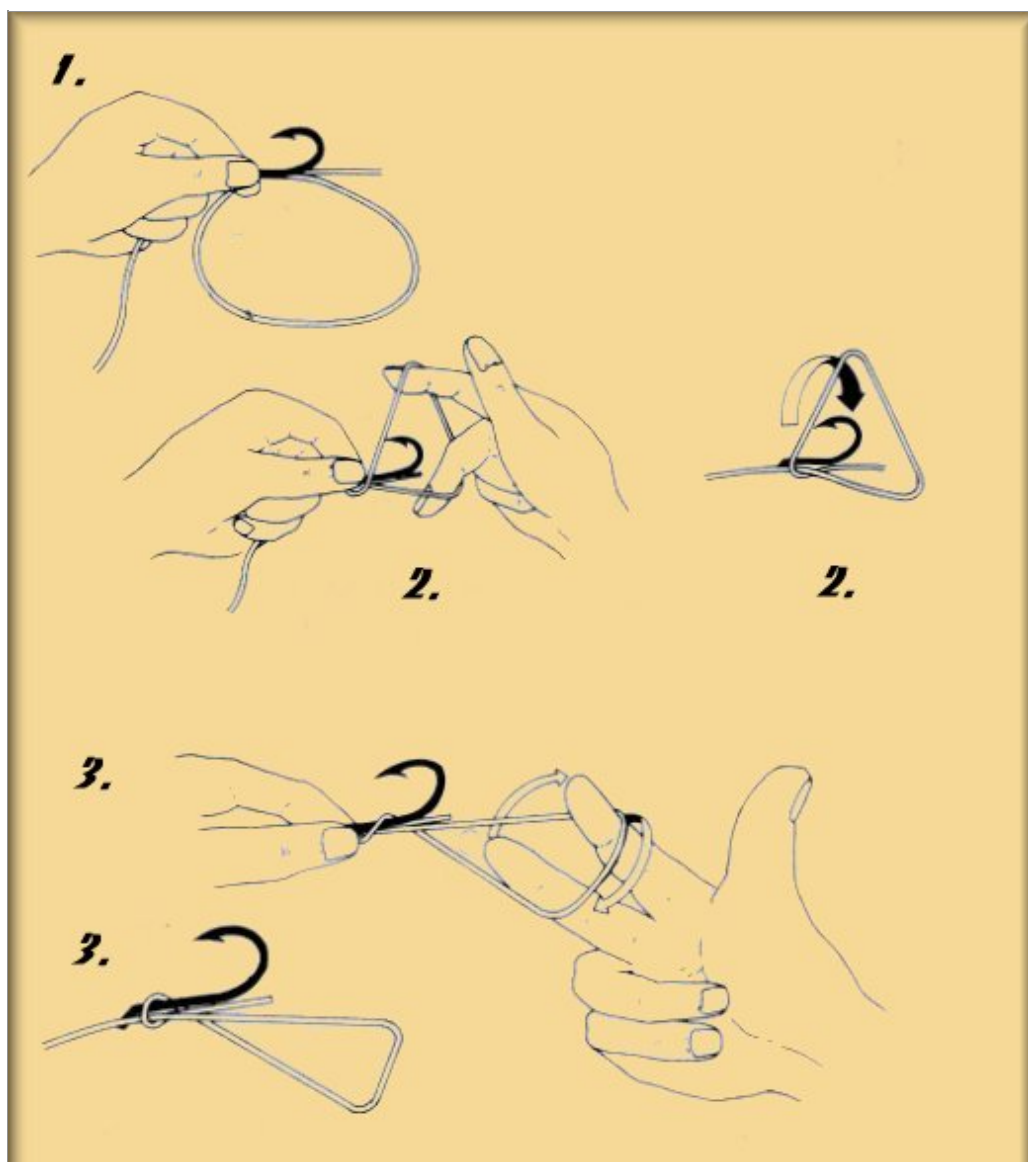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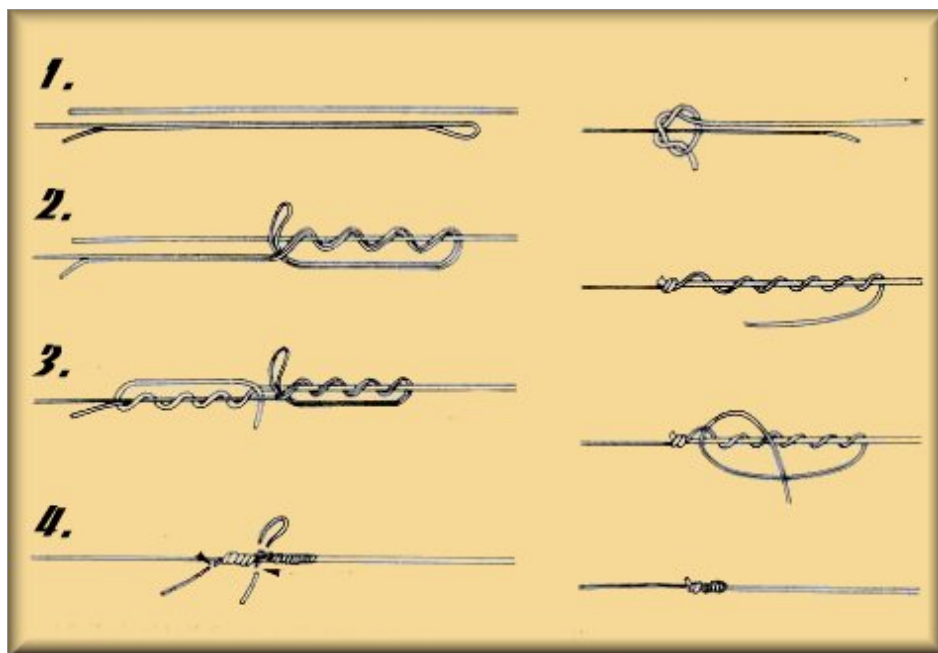
낚시 바늘 묶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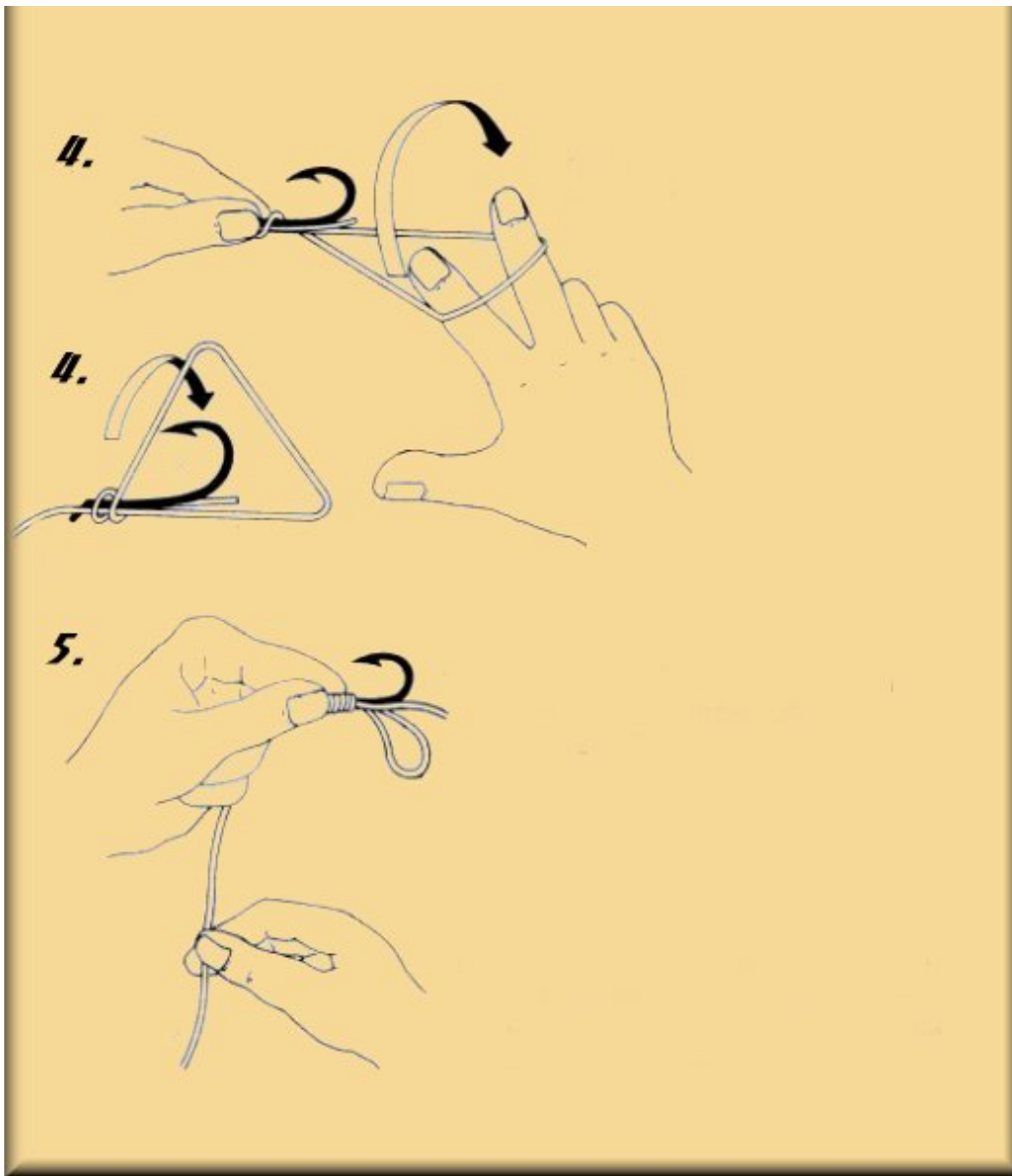
일반 낚시줄 매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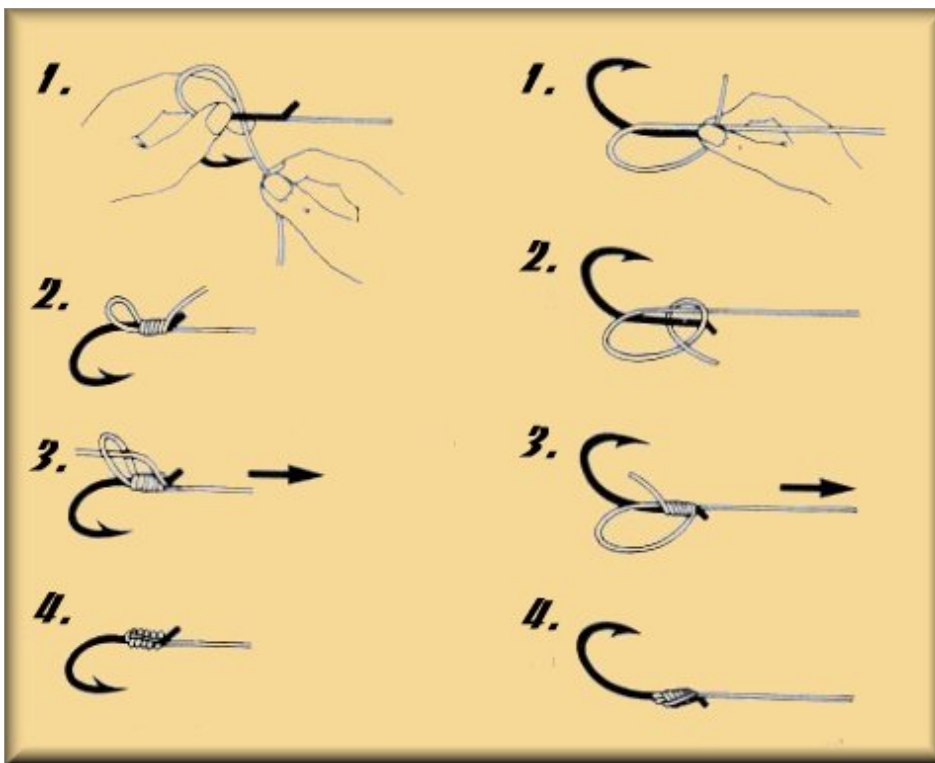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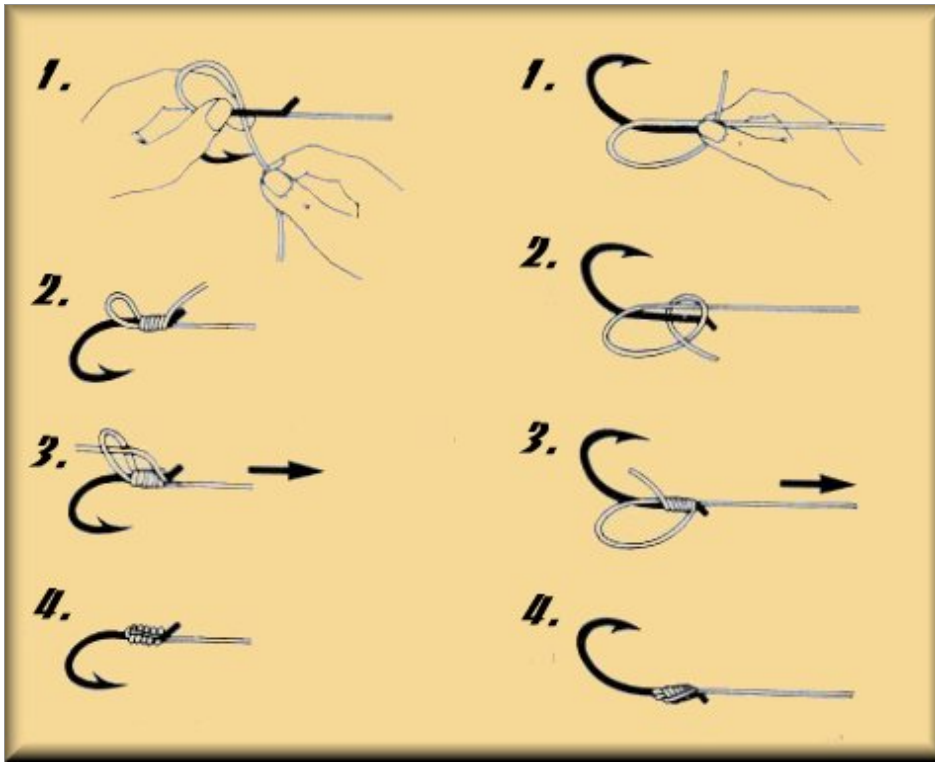
var articleno = "17948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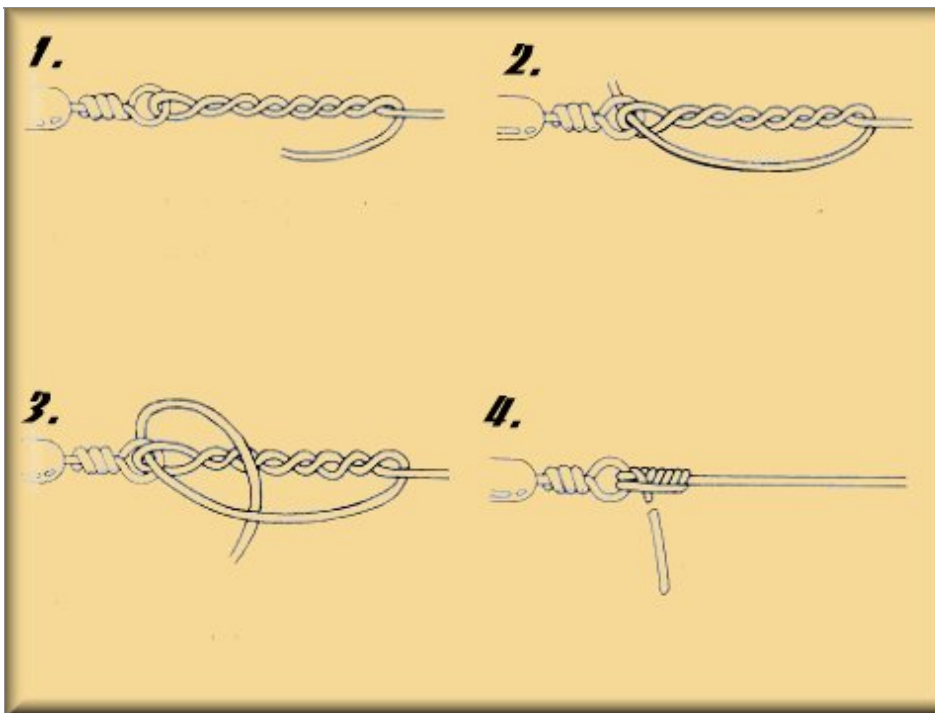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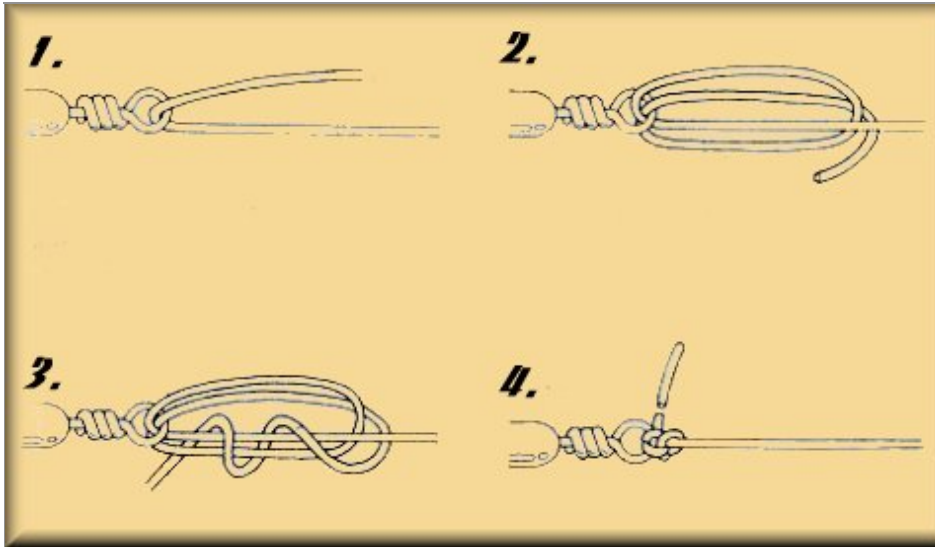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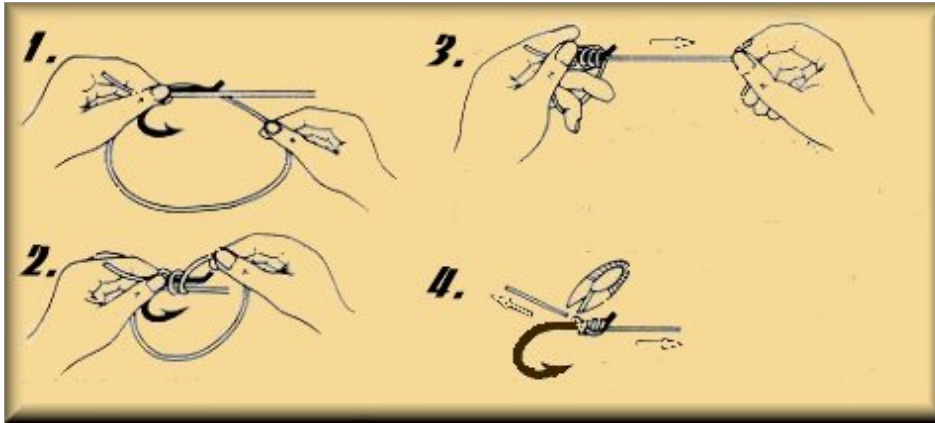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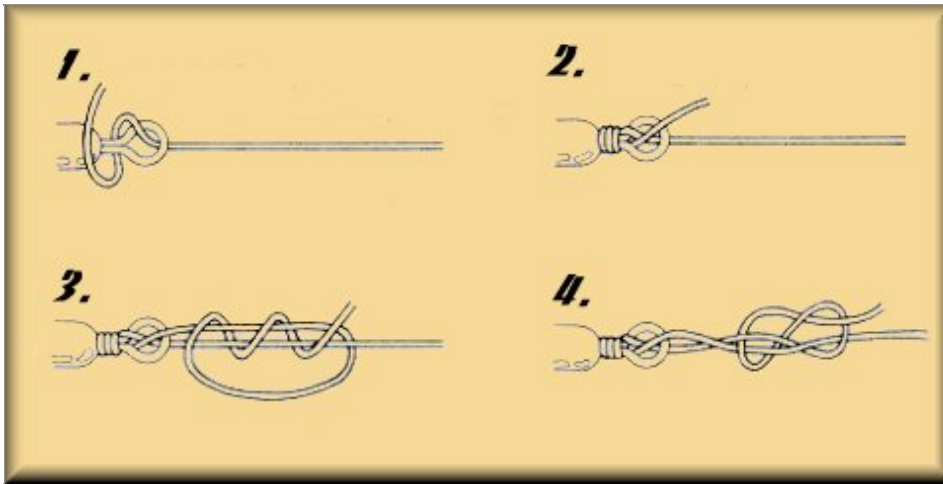












생선 237 가지의 생태적 특성과 그 맛

(단어를 클릭하면 설명을 볼 수가 있음)

먹장어	묵피장어	칠성장어	괭이상어	삿장이상어	꼬리기름상어	불범상어
두툽상어	별상어	표범상어	모조리상어	노랑가오리	흰가오리	목탁가오리
홍 어	상어가오리	가래상어	전기가오리	은상어	전 어	청 어
눈통멸	밴댕이	준 치	정어리	삿줄멸	싱 어	웅 어
멸 치	반 지	뱀장어	붕장어	갯장어	삿 멸	은 어
연 어	솔종개	히메치	날매통이	매통이	황매통이	동갈치
꽁 치	날 치	학공치	양미리	홍대치	대 구	명 태
아 귀	황아귀	금눈돔	도화돔	철갑둥어	민달고기	달고기
송 어	애꼬치	꼬치고기	까나리	열동가리돔	줄도화돔	독 돔
황옥돔	옥 돔	갈전갱이	민전갱이	가라지	병치매가리	젯방어
방 어	전갱이	세동가리돔	여덟동가리	만새기	망상어	선홍치
벙에돔	사랑놀래기	호박돔	용치놀래기	황놀래기	어렁놀래기	옥두놀래기
노랑촉수	실꼬리돔	네동가리	돌 돔	날개주걱치	황줄돔	눈볼대
농 어	바금다리	자리돔	군평선이	벤자리	어름돔	뽕 돔
홍 치	날새기	보구치	흑조기	황강달이	눈강달이	민 태
꼬마민어	민 어	수조기	부 세	참조기	게르치	범 돔
노랑벤자리	붉벤자리	붉바리	도도바리	능성어	우각바리	청보리멸

보리멸	감성돔	황 돔	붉 돔	참 돔	도루묵	빨판상어
붉은메기	그물메기	통 치	꼬치삼치	몽치다래	가다랑어	줄삼치
망치고등어	고등어	삼 치	황다랑어	눈다랑어	참다랑어	갈 치
독가시치	연어병치	샛 돔	동강연치	보라기름눈돔	병 어	덕 대
문절망둑	풀망둑	도화망둑	열쌍동가리	쌍동가리	베도라치	장갱이
푸령통구멍	통구멍이	얼룩통구멍	등가시치	풀미역치	빨간횡대	까치횡대
고무꼭정어	대구횡대	삼세기	별쪽지성대	노래미	쥐노래미	임연수어
꼼 치	빨간양태	까지양태	비늘양태	양 태	홍감펍	솔배감펍
점감펍	불 락	개불락	조피불락	불불락	우럭불락	붉감펍
숨뱅이	쭈기미	성 대	쌍뿔달재	꼬마달재	가시달갱이	달강어
밑달갱이	밑성대	꽂지양태	도화양태	풀넙치	넙 치	별넙치
용가자미	줄가자미	눈가자미	물가자미	기름가자미	돌가자미	참가자미
총거리가자미	문치가자미	찰가자미	도다리	갈가자미	범가자미	참서대
개서대	용서대	흑대기	노랑각시서대	객주리	날개쥐치	말쥐치
쥐 치	거북복	가시복	개복치	은밀복	흑밀복	복 섬
줄 복	흰점복	검 복	검자주복	자주복<>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까지 꼭지 낚시를 하면서 통계적으로 잡아본 데이터를 올려 볼려고 합니다...

장소는 영천이구요...

꼭지낚시는 경첩이 지나서 10일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너무 추어서 잘 안잡히지 않느냐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으나..전 항상 이때가 가장 피크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봄에는 스피너가 가장 잘먹힙니다..

3월 10일~3월 20일까지는 1/8 금색 스피너가 가장 잘먹힙니다.

웜이 안된다는것은 아니지만 스피너가 그래도 조과나 씨알이나 모든것이 좋지요

루이스터테일이나 텐더마틴사의 제품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견적이 만만하지 않은지라.... ㅎㅎ

기록어에 도전하는 시기 이기도 합니다.

3월 20일~ 4월 10일

씨알이나 마릿수나 대박 날때지요..

웜이나 스피너나 둘다 좋은 조과를 올리지만 씨알면에서 웜이 조금은 좋네요..

지그헤드는 1/22온스에 웜은투명 1.5인치 아리보리 반짝이 있는것이 좋습니다..

4월 10일~ 4월 30일

산란기죠!!

전 잡아서 다른곳에 방류를(개체수 확대를 위해서) 많이 하지만, 그래도, 낚의 욕심이라는게 탈탈 터면서 올라오는 손맛땀시 낚시를 종종 하
지요^^

지그헤드는 1/16온스에 아이보리 불투명, 오일칼라, 연녹색, 투명 아이보리 반짝이를 준비하셔서 그날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물론
1.5인치겠지요^^

4월30일~ 5월 30일

슬슬 녹음이 짙어질 시기죠..

연녹색 투명 반짝이가 잘먹힙니다..

투명 반짝이도 잘되구요...

스피너에는 씨알이 현격히 작아지죠..

산란도했겠다~ 할일도 없어져서인지 루어에 반응이 점점 떨어집니다..

5월 30일~8월30일

정말 테크닉으로 잡아내는 시기지요..

흰색 웜에 그래도 좀 나은 조과를 보이네요.....

참 잡아 먹기 힘든 시기 입니다...

8월30일 ~ 9월 30일

아침저녁으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이른 아침에오일칼라 월에 마릿수 재미가 있습니다...

9월30일~10월30일

대물을 위하여 낚시를 할때지만 조과가 썩 좋지는 않아서 슬슬 꺾지낚시를 접어야 할시가지요..

그래도 대물을 잡으시려면, 1/4금색 스피너를 써보시는것도 좋겠네요...

이상 제가 꺾지를 한 몇년동안 잡아본 경험입니다...

문경이나, 담양, 산청쪽은 워낙 루어꾼들이 많아서 월의 칼라가 아주 화려하지만, 아직 영천쪽은 괴기들이 순진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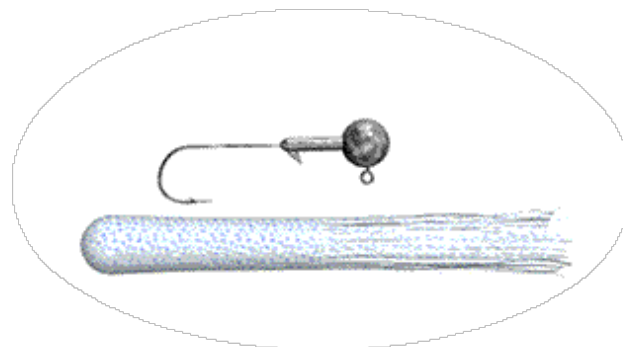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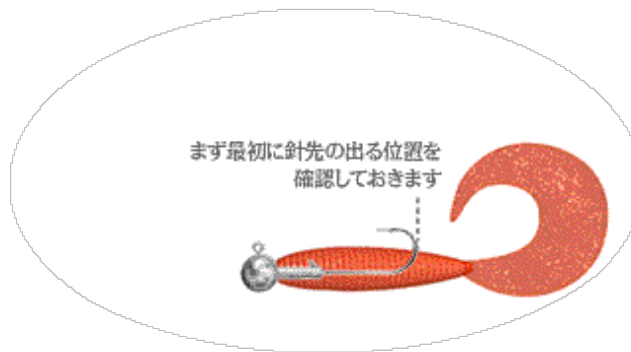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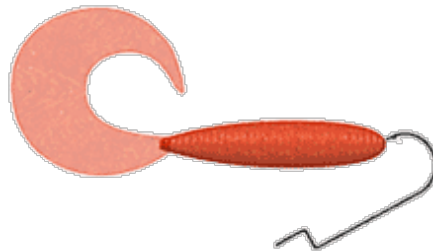
볼락이나 별 차이는 없지만, 미새하게나마 약이 살짝 오를 때도 있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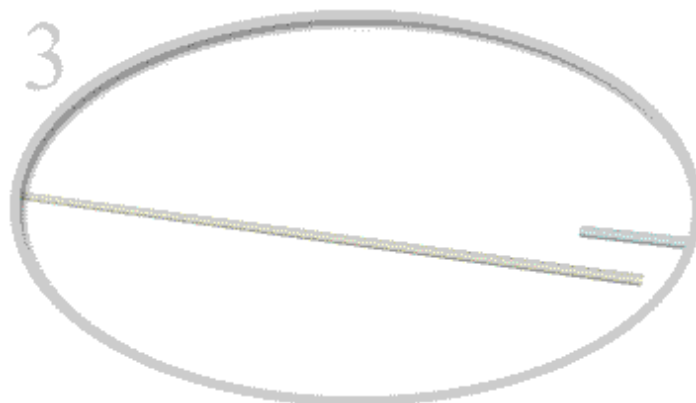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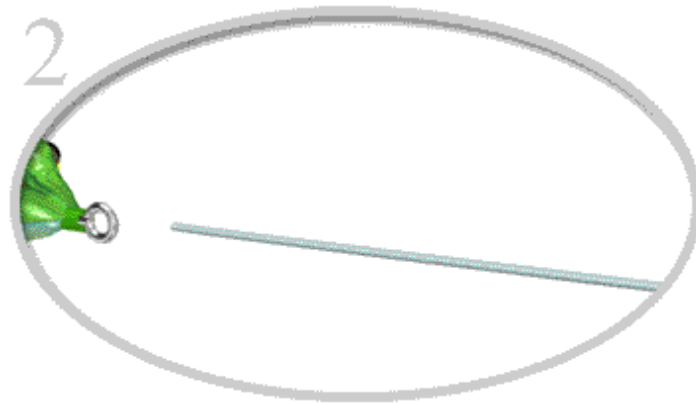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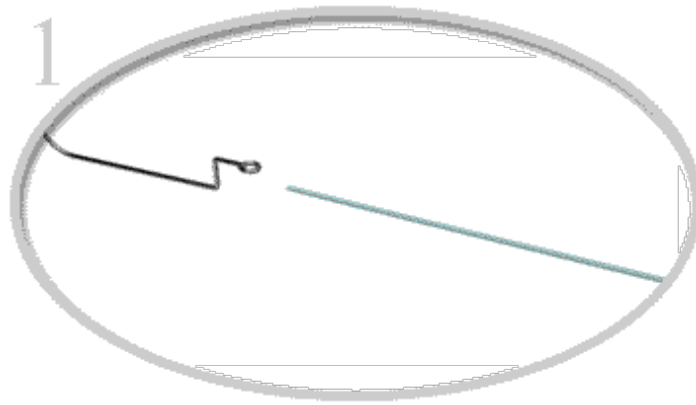
참고로 여름에는 은색 1/4온스 은색 스피너를 꼭 가지고 다니세요..

팔뚝만한 메기들이 해가 지고 나면 무자비하게 끌고 다니거든요...

우리나라 꺾지 기록어가 30이 조금 넘는다고 들었는데

기록어에 도전하셔서 대박들 하세요^^





頭が弛かないように下アゴを強く持ってください。
軽く持つとルアーでケガをすることがありますので
くれぐれも注意してください。



전 국토의 대부분 하천에 (1급수에 준하는) 서식한다.

돌틈과 바윗틈에 자기 영역을 두고

스쳐가는 소형어류를 포식한다.

개체 수가 아직은 많지만..

수질 오염..

특히..

무분별한 하천정비사업,

으로 인해 어쩌면 멸종위기에 가까울 수도 있다.

생김새는 우럭 치어와 흡사하다.

생미끼로도 낚시가능하지만..

웜, 스폰 특히 회전력이 좋은 스피너에 반응이 뛰어나다.

흐름에 역류하면서 수면과 바닥 중간 즈음에서 입질이 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햇살의 방향과 캐스팅 방향, 휘셔의 위치 선정에서 조과의 차이가 많다.

나의 경우 태양을 바라보고 10시 또는 두시 방향으로 캐스팅한다.

물론 대상어의 개체수가 많을 경우 그런 의미는 감소한다.

주로 햇살이 여울 발에서 부딪져 내리는 화창한 날이 적기라 할 수있다.

여울 발이 끝나면서 수량이 늘어나 약간 물흐름이 느려지는 호박돌발이 주포인트라 할 수있다.

섬진강 일부에서는 칼린웜 붉은 색 계열에 폭발적인 입질이 온다.

로드는 깍지전용 또는 6피트 울트라 라이트.

릴은 볼베어링 스피닝 릴..특히 릴링시 따그르르 소리나는 릴에 대물 깍지가 잘 잡힌다

라는 이야기가 문경 영강 쪽 진남교 아래에서부터 전설로 이어지고 있다.

보통 깍지 루어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 이유는 개체수가 워낙 많기 때문이라 여긴다.

그러나 대상어의 개체수가 적을 땐 조과를 올리는 사람만 올리게 되어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거와 같이

포인트의 선정, 캐스팅의 방향, 릴링의 테크닉의 차이 때문 일것이다.

나의 경우.

일단은 스피너의 느낌을 감지 해낼 정도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로드는 낭창거리는 라이트 이상의 액션이 필요하며

스피닝 릴도 되도록 작고 릴링의 유격이 없고 부드러워야 할것이다.

물론 라인도 1.5 이하여야 한다.

한때 물흐름을 이용해서 스피너를 멀리 흘러내리게 하여 장거리 릴링을 시도 해보기도 했지만 그것 보다는 잦은 부지런한 캐스팅에 조화가 더 뛰어나다.
그 이유는 꺾지 또한 자기 영역이 있기때문이라 생각되어진다.

그럽과 웜(Grub & Worm) Soft Bait

문자 그대로 물고기의 먹이가 될 수 있는 벌레나 미끼의 형상을 본 떠 만든 루어다. 재질은 고무나 부드러운 플라스틱이 주로 쓰이며 실제 미끼처럼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한다. 그럽(그림의 하단부)은 웜에 비해서 꼬리에 너풀거리는 부분이 달려 있는 점이 다르다.



■ 지그헤드 (Jig Head) Soft Bait

그림처럼 봉돌이 붙어 있는 낚시바늘을 말한다. 우럭등의 바닥고기를 대상으로 할 때는 이 바늘에 웜이나 그럽을 끼워서 사용하지만, 농어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꼰뚜기 형상의 루어나 닭털을 사용한 것들이 많이 사용된다. 그림에서 보는 닭털루어로 2000년 초봄부터 여름사이에 서해안 농어낚시에서 짹짹하게 재미를 본 사람이 있다.



■ 스플릿 샷 (Split shot) Soft Bait

보통의 낚시바늘에 원이나 그럽을 끼우고, 바늘이 묶여진 목줄에 봉돌을 물려서 쓰는 루어를 말한다. 여기에 사용하는 봉돌은 가운데가 갈라져 있는데 줄을 감싸듯 끼워서 짝 눌러서 쓴다. 스플릿 샷은 이 봉돌모양에서 나온 영어 명칭으로 생각된다.... 납으로 된 총알을 반으로 가른 것?! 봉돌을 물리는 위치는, 바늘과 봉돌이 같이 움직이도록 맞추는 것이 좋다. 보통은 바늘에서 10~ 15cm 정도 띄운 거리에 봉돌을 단다.

개나리가 꽃망울을 터트리는 3월 하순부터 산과 계곡이 붉게 물드는 10월 하순까지가 루어 낚시 계절입니다. 이 때가 되면 전국의 계곡과 강, 호수에서 이곳 저곳으로 이동하면서 꺾지, 송어, 산천어, 꼬리, 메기, 가물치등을 낚을 수 있으며, 특히 루어낚시 대상어종중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쏘가리의 힘찬 파이팅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은 루어 낚시인만이 느낄 수 있는 매력이라 하겠습니다.

낚시 중에 미끼로 쓰이는 루어는 단지 고무조각이나 쥘조각에 불과할 지 모르지만, 물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체 처럼 작동시켜 대상어종 물고기들의 공격본능을 자극하여 낚아내는 동적인 레포츠입니다.

루어 낚시에 처음 입문하는 낚시인을 위해 기본적인 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선택하세요(바로 가기)

1. [릴\(Reel\)의 선택](#)
2. [낚시대\(Rod\)의 선택](#)
3. [루어의 선택](#)
4. [낚싯줄의 선택 및 기타](#)

1. 릴(Reel)의 선택

릴의 종류는 무척 다양하지만 강계에서는 멀리 있는 포인트까지 루어를 원투하기 때문에 스피닝릴을 보편적으로 사용합니다. 루어에 쓰이는 릴의 무게는 200 ~ 300g내외정도의 소형으로, 기어의 회전비가 5.2 : 1 ~ 5.4 : 1 정도가 좋으며 후론트 드랙(Front Drag)과 리어 드랙(Rear Drag)의 2종류가 있으며 개인의 취향에 맞춰 선택하면 됩니다. (Rear Drag 릴은 릴의 메카니즘상 Front Drag의 1/2 조력입니다.)

릴 구입시 핸들을 돌려봐서 중심(릴링 밸런스)이 심하게 흔들리는 제품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스피닝 로드와 스피닝릴

Front Drag

Rear Drag

2. 낚시대(Rod)의 선택

낚시대의 재질은 그라스(Glass)와 카본(Carbon)의 2종류이며 2절, 4절, 안테나식 등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 낚시대 길이의 종류

5.1ft	5.6ft	6ft	6.6ft	7ft
1.5M	1.68M	1.8M	1.98M	2.1M

액션(휨새)은 울트라 라이트, 라이트, 미디엄과 헤비가 있습니다.

한번 셋팅으로 사용할 수 있는 2절의 라이트 액션대를 권장하며 장애물이 많은 계곡에서 낚지나 송어를 낚을 때에는 5.6 ~ 6피트의 짧은 낚시대가 유리합니다.

◎ 낚시대의 액션

	Ultra Light Action (※ 낚지, 송어등)
	Medium Light Action (※ 낚지, 송어, 고리, 쏘가리)
	Light Action (※ 낚지, 송어, 고리, 쏘가리)
	Heavy Action (※ 배스, 쏘가리, 가물치)

3. 루어의 선택

루어의 어원은 영어에서 온 것으로 "유혹하다. 매혹물. 가짜 미끼"라는 의미입니다.

물고기가 먹는 먹이의 모양을 따서 만든 것인데 움직임으로 유인하거나, 빛과 소리 혹은 작은 동물이나 곤충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스푼루어의 경우, 고려해야 할 것은 스푼의 완곡도, 무게, 색상이며, 완곡도는 유속에, 무게는 카운트 다운(침강속도), 색상은 물색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항은 낚시터 현지 상황에 따라 그곳에 알맞는 스푼을 선택 합니다.

스푼루어가 가장 위력을 발휘 할 때는 포인트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때이며, 이때 원투 가능한 거리는 개인의 차가 있지만, 대개 12g ~15g의 스푼의 비거리는 30 ~ 40m 정도까지 던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웜(worm)이 있는데, 스푼에 비하여 다양한 형태와 색상이 있습니다. 루어낚시에 쓰이는 대중적인 웜은 그룹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 크기는 1, 1.5, 2, 3인치의 웜이 사용됩니다.

또한 웜은 지그헤드와 결합하여 사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무게의 지그헤드가 사용됩니다.

1 / 16 oz	1 / 8 oz	1 / 4 oz	3 / 8 oz	1 / 2 oz
1.75g	3.5g	7g	10.5g	14g

이 중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지그는 1/8oz와 1/4oz를 각각 2인치, 3인치 웜에 결합하여 많이 씁니다. 기타 플러그류와 낚지와 송어, 산천어 낚시에 많이 쓰이는 스피너 종류가 있습니다.

◎ 루어의 종류

--

◎ 루어의 작동

SPOON

SPINNER

SPOON

4. 낚싯줄의 선택

루어 낚시에는 주로 모노, 필라멘트(MONO-FILAMENT)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며 1.5호 줄은 꺾지나 송어용으로, 2호줄은 꼬리, 쏘가리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국내 시판 품목은 호수로 표시하며 수입품은 파운드(lb)로 표시되는데 종류와 인장강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파운드(lb)	호수	굵기(mm)	인장강도(Kg)
---------	----	--------	----------

2	0.6	0.125	0.9
4	1	0.175	1.8
6	1.5	0.225	2.72
8	2	0.275	3.6
10	2.5	0.30	4.5
12	3	0.35	5.5

릴에 감겨 있는 낚시줄을 여러번 원투하다 보면 퍼머넌트(줄 꼬임)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퍼머넌트가 난 부분은 줄이 약해져 있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 낚시줄

루어낚시는 바닥걸림이 심하고 또한 물속의 험지형에 루어를 유영시키는 형태의 낚시이므로 낚시줄이 상처 입거나 늘어나 본래의 인장강도를 지니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두 번의 출조 후에는 반드시 낚시줄의 상태를 점검하여, 이때 상처입거나 늘어난 줄은 교체해 주어야 대어가 물렸을 때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쏘가리를 낚기 위해서도 많은 경험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계절과 강계 및 호수, 댐, 하루중의 때에 따라 쏘가리가 거쳐하는 곳이 틀리며 또한 그에 따라 사용되는 루어의 종류가 틀립니다.

또 깊은 소와 여울에서의 릴링 속도 및 물속 바닥에서 루어를 띄우는 높이 또한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이른 봄과 늦가을에는 깊은소를 공략하며, 5월경에는 잔잔한 여울 및 소가 공략지점이며

한여름에는 여울을 공략하는게 좋습니다.

강계에서는 큰 위험요소가 없지만 호수에서는 낙석과 낙반등에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수위변동이 잦은 댐에서는 안전사고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껌미 손전등, 안경, 비상약품등을 갖추고 가는게 좋습니다.

바다루어낚시를 하며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지그헤드 채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다루어의 초기시절 쏘가리 낚시하시던 분들의 주력채비가 지그헤드채비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루어교체의 신속성과 경제성 등으로 현재는 가장 일반적인 바다루어채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노리는 우럭, 광어등이 바닥층에 분포하는 어종이라서 지그헤드 채비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그헤드는 무게에 따라 1/32 온스에서 부터 1온스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또한 각 무게의 지그헤드는 바늘의 크기에 따라 1호~4호까지 분류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른 지그헤드의 선택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다에서 쓰이는 지그헤드는 1/8 온스에서 1/4 온스 사이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1/8 온스는 물살의 흐름이 작고 밀걸림이 많은 지역에서 밀걸림을 줄이고 물살에 동화하면서 루어의 살아있는 액션을 연출하기 위해 자주 사용합니다. 특히 동해처럼 물살의 흐름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는 원투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1/8온스 정도를 사용하시면 주효하실 겁니다. 2인치 ~3인치 글럽웜에 채결하여 사용합니다.

1/4 온스는 사리때처럼 물살이 강할때나 원거리에 포인트가 형성되었을때 많이 사용합니다. 3인치 이상의 글럽웜을 채결하여 사용합니다. 마릿수보다는 씨알을 노릴때 사용하시면 좋을 겁니다.

1/2 온스는 광어, 농어 등을 노리고 원거리 투척시에 사용합니다. 물살을 이기고 지그헤드를 빨리 가라앉히기보다는 대형어종을 위해 원거리 투척이 필요하거나 큰 인치수의 웜을 장착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6.6피트가 바다루어의 주력으로 자리잡았던 시기에는 잘 사용되지 않았으나 7-8피트가 주력으로 자리잡아가는 최근에 사용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글럽웜의 크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소 3인치 이상의 웜을 장착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그헤드의 바늘크기는 일반적으로 작은 크기의 바늘을 선호하십니다. 이유는 바다루어낚시의 특성상 밀걸림이 많아 바늘코의 크기가 작을수록 밀걸림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바다어종의 탐식성으로 굳이 큰 바늘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수온기의 입질이 아주 간사할 경우 오히려 큰 바늘의 지그헤드를 써 자동후킹을 노리기도 하고 아예 아주 작은 지그헤드(1/32온스 정도)를 사용하여 이물감을 적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타 1/16, 1/32, 1온스 의 지그헤드 등이 존재하며 일반적인 지그헤드의 밀걸림 단점을 줄이고자 머리부분이 좌우로 넓게 만들어지 풋볼형 지그헤드도 있습니다.

적당한 지그헤드의 사용은 정답은 없습니다. 단지 출조시 주변에서 무엇을 주력으로 하는지 자세히 보시고 상황에 따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지그헤드 사용법을 익혀야 할 것입니다.

지그헤드의 운용

지그헤드를 운용하며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밀걸림일 것입니다. 특히 바다루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바닥의 느낌, 밀걸림, 입질 등을 구별하기 힘들어 밀걸림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고수님들도 밀걸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초보시절보다는 현저히 낮은 밀걸림을 보이십니다. 밀걸림을 줄이면서도 바닥을 쳐서 대상어의 바이트를 유도하는 것이 지그헤드 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밀걸림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밀걸림을 현저히 줄이실 수 있습니다.

- 카운트 다운을 몸에 익히라

가장 많이 듣는 방법일 겁니다. 카운트 다운은 지그헤드의 밀걸림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목표지점에서 정확한 대상어의 입질을 유도해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캐스팅후에 루어가 수면에 착수하면 여유라인을 정리하며 카운트를 시작합니다. 라인이 물에 잡기는 동작이 멈추는 시간까지 카운트를 하시고 천천히 루어를 회수합니다. 심중팔구는 입질을 하거나 밀걸림이 발생할 것입니다. 밀걸림이 발생한 경우 다시 그자리에 캐스팅한후 똑같은 방법으로 카운트를 하되 카운트 수를 반이나 한숫자 정도 줄여 릴링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8에 릴링을 시작했다면 7.5 또는 7에 릴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만으로도 루어를 바닥에 최대한 붙여 릴링을 하면서도 밀걸림을 현저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착수후 풀링시에만 카운트를 하지말고 릴링을 하면서도 카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이상없이 릴링이 되다 갑자기 밀걸림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은 장애물이 있는 곳으로 장애물에 몸을 은신하고 먹이를 공격하는 대상어의 특성상 그곳이 가장 좋은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즉 포인트가 될 지역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릴링시 카운트를 하여 5쯤 되는 곳에서 밀걸림이 발생하였다면 그 지역을 집중 공략하면 좋은 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집중공략 지역에서는 호핑, 스위밍 등을 통해 밀걸림을 줄이고 대상어의 공격을 유도하라

릴링시 카운트로 집중적으로 밀걸림이 발생하는 지역을 발견하였다면 밀걸림을 줄이면서도 그곳에 숨어있는 대상어를 잡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인지점에서 밀걸림이 발생하였다면 4정도 카운트를 하였을때 가볍게 톡톡 채주면서 지그헤드가 장애물을 타고 넘어올 수 있도록 루어를 운영해보십시오. 밀걸림을 현저히 줄이면서도 입질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가볍게 톡 한번 쳐주신후 지그헤드가 장애물위를 천천히 유영한다는 기분으로 릴링(스위밍)하셔도 밀걸림을 줄이면서 입질을 유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밀걸림시 지그헤드 회수법

어느정도 바닥 감각이 익혀지시면 지그헤드가 장애물에 살짝 부딪히는 정도는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그헤드가 장애물에 완전히 걸리기 전에 여유줄을 살짝 주신후 가볍게 몇번 쳐주시는 것만으로 60%이상 회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그헤드가 완전히 장애물에 걸렸을 경우에는 릴에 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릴의 베일을 젖힌후 스폴부분을 한손으로 잡아 고정하고 라인을 잡고 힘껏 당겼다가 놓는 방법으로 지그헤드가 장애물에서 튕겨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낚시대가 휠정도로 힘껏 당긴후 베일을 갑자기 제껴 라인 탄성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릴과 낚시대의 무리가 감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의 방법으로도 지그헤드가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과감히 라인을 끊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라인은 결절된 부분에서 끊어지므로 릴과 낚시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라인과 수평을 유지한채 손으로 라인을 잡아당겨 끊으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손이 라인에 베일 염려가 있으니 꼭 장갑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루어낚시 시작하려는데 어떤 낚시대 사야되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한참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똑 부러지게 어느회사 어느모델 사세요! 라고 말할수도 없습니다. 대상어종이나 사용할 루어에 따라서 낚시대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아래글 참고하셔서 낚시대 선택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 낚시대 재질에 따른 분류

- **글라스** : 우리나라에선 60년대부터 유리섬유를 이용해 만든 글라스낚시대가 생산되었습니다. 글라스낚시대는 견고하고 튼튼하여 웬만한 충격에는 부러지지 않는것이 장점이지만, 무겁고 감도가 좋지않아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 **카본** : 재료공학기술의 발달로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탄소를 이용해 낚시대가 제작되기 시작했는데, 가볍고, 감도도 뛰어나서 현재 까지도 대부분의 낚시대가 카본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다만 잘 부러지고, 글라스낚시대에 비해 가격도 비싼것이 단점입니다.

○ 휨새(Taper)에 따른 분류

라인을 통해 대끝에 힘이 걸렸을때 어느부분부터 휘는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패스트(Fast), 모데라토(Moderato), 슬로우(Slow)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 **패스트테이퍼 (Fast Taper)** : 낚시대전체를 10등분했을때 휘는부분 3정도.
- **모데라토테이퍼 (Moderato Taper)** : 낚시대전체를 10등분했을때 휘는부분이 4정도.
- **슬로우테이퍼 (Slow Taper)** : 낚시대전체를 10등분했을때 휘는부분이 5정도.

사용할 루어와 대상어종에 따라 휨새 또한 선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 강도에 따른 분류

Rod action	루어무게 적합라인		용도
UL(울트라라이트)	2-7g	3-6 pound	끼치낚시

L (라이트)	4-9g	4-8 pound	송어쏘가리낚시
ML(미디움라이트)	4-14g	6-12 pound	10그램 이하의 가벼운 월,포퍼 등
M (미디움)	6-17g	8-14 pound	조금 무게가 나가는 루어
MH(미디움헤비)	6-20g	10-16 pound	1/2온스 스피너베이트, 무거운 텍사스리그 등
H (헤비)	8-25g	12-20 pound	20그램 이상 무거운 루어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음

낚시줄 굵기는 4파운드에 1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호 낚시줄이면 $3 \times 4 = 12$ 파운드.

'꼭 이렇다!' 라는 법칙은 없지만, 사용할 루어에 따라 낚시대 강도 또한 맞춰야 합니다.

○ 절수에 따른 분류

- **원피스** : 1절로 만들어진 낚시대, 보관, 이동이 불편하지만, 강도나 감도면에서 2절보다 유리함.
- **투피스** : 대의 중간부분을 끼우는 형태, 낚시대 보관, 이동면에서 좋음.

○ 사용할 릴에 따른 분류

스피닝 릴 : 주로 가벼운 루어와 가는 낚시줄을 사용. 초보자가 사용하기에 무난한 릴입니다. 배스낚시에서는 시마노릴 기준으로 2000번 전후가 많이 사용됩니다.

베이트캐스팅 릴 : 스피닝에 비해 굵은줄과 다소 무거운루어(1/4온스이상)에 적합. 릴에 감긴 낚시줄이 바로 풀려나가는 방식이므로 정확한 캐스팅에 유리하지만, 역회전으로 인한 영킴현상이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베이트캐스팅릴용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권총손잡이가 있고, 가이드(낚시줄이 통과하는곳)의 내경이 작으면 베이트캐스팅 릴 용 낚시대입니다.

○ 정리해 보면

- 일반적으로 패스트테이퍼 정도의 힘새에 ML, M, MH 정도의 강도, 6.6피트(약2미터)정도길이의 투피스낚시대를 배스낚시에 많이 사용합니다.
- 낚시대를 선택할때는 루어전문점에 들러 실물을 확인하고 설명을 충분히 들은 다음, 사용할 루어와 릴, 대상어종을 먼저 생각한 다음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 낚시대 AS는 부러진 낚시대와 새것의 40 ~ 60%정도 가격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낚시대나 릴의 품질은 국산도 외제 못지않게 좋습니다.
- 비쌀수록 가볍고 감도도 좋지만, 부러질 확률도 높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없는 가격의 낚시대를 고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 릴은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오랫동안 사용할수 있으므로, 중급이상의 제품을 사는것이 좋습니다.
- 처음 시작할때는 스피닝 한세트정도를 갖추지만, 어느정도 경력이 쌓이면 서너세트 정도는 갖추게 됩니다.

볼락 웜낚시 매니아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웜 낚시라 함은 살아있는 미끼가 아닌 가짜 미끼를 사용하여
볼락을 속여 낚시를 하는 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볼락을 속이기 위해서는 볼락이 있는 주변 볼락의 먹이가 되는
작은 물고기나 새우 등이 있는지 잘봐야 합니다.
아님 첫고기를 잡고 난뒤 배속을 봐서 어떤 먹이를 취이 했는지 알고
먹이 모양의 웜을 쓰면 거의 100%로 가까이 잡을수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웜의 종류를 보면
작은 물고기 모양에서부터 새우모양까지 다양한 모양의 웜이 판매되고 있으니
종류에 따라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유용하게 쓰실수 있을것 입니다 .

먼저 장비라 함은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야면 장시간 낚시하는데 덜 피로하고
작은 볼락을 걸었을때도 손맛을 볼수 있습니다.
낚시대는 가볍고 짧은 대가 유리합니다.
전용루어대를 쓰면 더욱 좋겠지만은 없을시는 감성돔 선상낚시용이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저가의 루어대도 괜찮습니다.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낚창하고 길이는 2.5m~3.5m 정도의 낚시대면
충분하다고 생각 되네요.

릴은 소형이면 좋겠지요..가벼우니까요...^^
원줄은 모노필라민트(일반원줄)이던 pe줄 이던 상관은 없는데
모노 쓰실땐 다소 가는 원줄을 사용해야만 원투가 용이하고
가벼운 채비를 놀리는데 적당합니다.
1호~1.5호 가 좋습니다.

pe라인은 0.6~1호 까지 쓰는데 이줄을 사용하면 채비 잃음이 덜하고
원투도 잘되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사용시 릴에 감길때 잘못 감기면 캐스팅시 라인 트라블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두줄의 장단점은 모노는 줄의 텐션이 있고 pe는 없고...
강도는 같은 호수로 보면 pe 가 훨씬 앞서는데 꼬임이나 순간적인 힘에는 약합니다.

웜은 야간엔 야광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크기는 베이트 피쉬의 크기에 맞추어 쓰는데
볼락의 먹이가 되는 베이트 피쉬의 크기가 대부분 1인치~2.5인치 정도 됩니다.
웜의 크기는 그때그때 알아서 하는것이 조과에 도움이 되겠네요..

지그헤드(봉돌이 끼워져 있는 바늘)의 크기도 웜에 맞추어 사용하는데
수심에 따라서 달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심 1m 내외는 1/24~1/34온스를 사용하고
이땐 캐스팅을 위해 원투용 찌를 사용합니다.
같이 수중에 잠길 수 있는 잠수찌면 훨씬 유리합니다.
저는 -b 찌를 자주 사용합니다.

수심이 최소 2m이상 까지 나올땐 지그헤드도 좀 더 무거운 것을 사용 합니다.
보통 1/16온스 정도를 사용하는데
이땐 지그헤드 무게로도 충분이 캐스팅이 되니 수중찌를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채비 방법은 먼저 모노원줄에 모든 채비를 직접 연결하는데
이땐 목줄이 필요없이 원줄에 지그헤드 까지 셋팅 합니다.
원투용 찌를 끼우고 찌멈춤고무, 40~50cm 거리를 두고 지그헤드....
쉽게 생각하면 병에돔 전유동 낚시와 흡사합니다.
이 채비는 효율성이 있는 반면에 바닥에 걸리면 찌까지 손실할 수 있습니다.

pe 라인을 원줄로 쓸 경우는
찌와 찌멈춤고무.다음에 극소형 도래를 채워 줍니다.
그리고 카본사로 목줄을 주는데 목줄의 호수는 0.8호~2호까지도 사용합니다.
길이는 50cm~1m 까지도 사용하는데
원투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길이로 주면 되겠네요.
이 방법의 장점은 지그헤드가 바닥에 걸렸을때 목줄과 지그헤드만 손실이 있는 채비 입니다.

낚시 방법은 볼락 채비를 한 낚시대를 멀리 볼락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캐스팅 합니다.
수심에 따라서 약간의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는데
이는 채비가 가라앉을때까지의 시간 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채비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5초~10초를 셉니다..

어느정도 내려갔다고 판단되면 서서히 릴링을 합니다.
이땐 주의할 점은 빨리 하면은 채비가 위로 뜨고
천천히 하며는 현 수심과 동일하게 따라오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본인의 마음에 달려 있으나 일단 여기서는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감으면서 약간의 액션도 가미하면 입질이 있을 것 입니다.

입질이 있으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진 알겠죠?..^^

이 동작을 계속 반복 합니다.

입질이 없으면 과감히 포인트를 이동합니다..

포인트 선정시는 야간엔 불빛이 있는 곳이면 오케이 입니다.

여기다 해초나 여발이면 금상첨화겠조..

부속섬에서는 깊은 바다 보단 다소 얕은 바다가 유리합니다.

볼락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어디던 괜찮습니다.

본섬주변이나 포구, 방파제, 해안도로의 갯바위,포구의 선박밑 등등..

이런 곳들이 볼락의 은신처입니다.

미끼로 쓰는 청개비나 산새우는 따로 액션을 주지 않아도 움직임이 있으니 입질이 있는데

웜은 가만히 있거나 그냥 감아 들이면 움직임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액션을 감미하면 입질받을 확율이 커지는 것이죠.

이상 위의 설명들이 정답은 아니나 그런대로 괜찮은 방법이니

한번 사용해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주경찰서 후문에서 한라산 쪽으로 200m정도 가시면

"제주 루어 피싱랜드" 가 있습니다.

여기로 가시면 채비와 테크닉까지 배우실 수 있습니다.

요즘 볼락들이 상당히 씨알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웜낚시를 배워 같이 손맛을 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물론 작은 씨알은 놓아 주는 것도 아름다운 낚시 모습이겠지요.^^

그럼 즐거운 낚시하시고 또 다른 정보가 있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게요.^^

- * 1/32온스 : 밑걸림이 무척 심한 곳이거나 물고기의 활성도가 좋아 조류에 약간 흘려 띄워서 대상을 잡고자 할 경우나 수심층이 1미터 내외 바닥층 공략할때도 사용.
- * 1/16온스 : 밑걸림이 심한 곳에 사용되며 수심층이 1.5~2미터 내외 사용.
- * 1/8 온스 : 1.5~3미터 수심 이내인 곳에서 사용되며 서해연안의 대부분 갯바위 지역.
- * 1/4 온스 : 수심층이 3~5미터 이내인 곳에 주로 사용되며 수심층이 3미터 이하라도 밑걸림이 적고 조류흐름이 약간 썩곳에서 주로 사용.
- * 3/8 온스 : 수심층이 5~8미터 이내인 곳에 사용되며 연안에서 원투하여 깊은 수심층을 노릴 경우나 보팅루어낚시를 할 경우에 주로사용.
- * 1/2 온스 : 수심층이 8~10미터 이내일 경우나 원투, 보팅할 경우 에 주로 사용.
- * 1 온스 : 수심층이 10미터 이상일 경우 사용 (지그헤드를 이용한 루어낚시의 수심 한계가 10미터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 * 수심에 따라 적절한 지그헤드를 사용하는게 좋고,
로드에 적정루어무게가 표시되어 있으니 그걸 보시고
지그헤드가 한계치를 넘는 무게가 되면 반드시 루어무게에 적합한 로드를 사용하는것이 좋음...^^*
- * 다른 루어도 마찬가지지만 루어대에 적당한 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로드는 탄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입질감도도 떨어지고 라인과 릴을 보호하기도 힘들어집니다...
- * 수심 이외에도 조류와 바람 그리고 라인의 굵기 등 여러 조건들에 의해 지그헤드의 무게를 가감하여 자신의 채비를 만들어 사용하여야 합니다.....

1. 우럭/놀래미 이해하기

① 식생

- 우럭과 놀래미는 식생지역이 거의 비슷합니다.

모래+빨+바위

상기중 2가지 정도만 섞여 있는 지형이라면 어디든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우럭과 놀래미는 대부분 5월을 전후하여 깊은곳에서 가까운 연안으로 이동하여 산란을 하게 됩니다.
산란을 마치면 다시 깊은 물속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시기는 장마를 전후한 7~8월이 됩니다.
아마도 바다 염도가 낮아지는 시기이고 더위로 인해 해수온도가 올라가는 시기와 겹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9~11월초순까지 연안 갯바위 낚시가 잘되며 수온이 내려가는 11월중순부터는 갯바위에서 입질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 우럭과 놀래미 모두 치어/새우/게/조개 등 소형어종을 잡아먹는 어식어종으로 공격성향이 있으며
우럭은 어종의 머리부분을 공격하며 놀래미는 꼬리를 잘라먹거나 역시 머리부분을 공격합니다.
- 2~3인치 웜으로 낚시하다보면 꼬리가 잘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20센치급 이상의 놀래미의 입질이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 놀래미는 해조류가 있는곳을 좋아하니 우럭을 원하신다면 공략지점으로는 부적격 할것 같습니다.

- 보통 갯바위에서 50m까지거리, 수심 약 15m전후까지는 20~30cm 전후의 씨알이 서식하며
30m이상의 수심에서 30cm 이상의 씨알이 서식할 확률이 높습니다.

- 보팅의 경우 갯바위에서 보통 50~100m정도 떨어진 곳에서 낚시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연유에서 입니다.

- 우럭의 경우 야간 낚시일수록 활성도가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놀래미의 경우는 주간이 활성도가 좋습니다.

- 모든 물고기는 측선(옆줄)에 의해 수온/조도/수압 등의 정보를 읽게 됩니다.
물론 어식어종의 경우 시각이 발달합니다만, 시각보다는 측선의 정보가 더 발달되었다고 봅니다.

② 공략

- 퇴적암반층이 아닌 화강암반층으로 된 지형이나 밀밀한 바닥조건에는 소위 대물이 낚일 확률이 떨어집니다.

- 흔히 말하는 호박돌(마티즈 전후 크기의 바위)이 박혀 있다든지 칼바위에서 떨어져 내린 돌무너진 자리나,
굴이 패인 복잡한 여를 이루고 주위에 본류가 흐르거나 지류 혹은 와류가 생기는 지역에서

조류의 경계지점을 노리는것이 좋습니다.

- 깊숙한 만을 이룬 곳 보다는 돌출된 곳부리 지형의 좌~우를 노리는 것이 대물과의 만남에 유리합니다.

- 돌출된 곳부리가 깊숙히 만을 이룬 지형의 중간쯤에 위치한다하더라도 수심이 나와주고 조류소통이 원활한 곳이라면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들물(밀물)과 날물(썰물)이 진행될때는 조류의 방향이 좌에서 우로 흐르기도 하고 우에서 좌로 흐르기도 하므로 조류의 방향과 속조류 등을 주의깊게 관찰하시면 조과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 우력이 나올것이라는 위치에 직접 캐스팅하지 마시고, 포인트라 생각되는 지점보다 조금 더 멀리 캐스팅하여 충분히 가라앉히고 리트리브(릴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류의 흐름을 감안하여 포인트라 생각되는 지점보다 좌우에 캐스팅하고 조류속도와 채비의 침강속도를 생각하여 주시면 보다 많은 입질 기회를 얻게 됩니다.

- 우력, 놀래미는 군락생활을 합니다. 한마리가 나왔다면 같은 장소에 5마리정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같은 지점에 같은 카운트로 캐스팅하시기 바랍니다.

우력은 쏘가리와 비슷하게 한마리가 없어진 자리는 다른놈이 와서 은신하게 되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차 노력보면 또다른 손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수심 낮은 곳에서는 낚싯대의 탑가이드가 자신의 눈위치와 일치할 정도의 높이로 약 45도 각도로 들고 하는 것이 밑걸림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심이 나와 준다고 생각하는 지형에서는 낚싯대의 탑가이드를 발밑 방향으로 내려주고 하시면 좋습니다.

흔히 바람이 많이 불때나 파도로 인해 라인이 너풀때때 아래로 내린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낚싯대의 탑가이드를 하늘로 하게 되면 채비 회수지점이 다가올수록 채비는 수면으로 많이 떠오르게 되며, 종종 발앞까지 따라오던 물고기가 회유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채비가 좀더 물속에서 유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채비는 바닥을 긁듯이 끌어주는 방법이 있으며, 바닥에서 50cm 전후하여 띄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간낚시나 가을에 낚시할 때에는 이미 활성도가 최상에 달하는 시점이어서 굳이 바닥을 긁어댈 필요도 없습니다. 우력이 바닥에 붙어있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살짝 띄워주는 방법도 구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입질 예상지점에 캐스팅 후 충분한 카운트로 바닥을 읽어내고 흠핑(띄우기)이나 폴링(떨어뜨리기)으로 토끼뽕 하듯이 액션을 주시고 이 동작을 응용해서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다양하게 액션을 구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일조량이 많은 맑은 날씨에는 최대한 현지 바위 색상, 해조류 색상, 치어들 색상 등 비슷한 색상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일조량이 적을때 흐린 날씨에는 밝은 색상은 최대한 피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례입니다. 주위는 어두운데 혼자 튀면 안되겠죠..잡혀먹을테니까,,

아니면 주위 환경과 부자연스러우니까 ...

탁한 물에서는 붉은 색상이나 흰 색상이 비교적 입질이 잦은 경우가 많습니다.

- 수심이 깊어질수록 일조량이 적어지며 자연히 어두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심해 생물의 경우 대부분 흰색을 띄게 되는데 선상 낚시시에 주꾸미, 낙지 등 흰생선에서 입질이

좋은것도 자연스런 호스적거림과 비린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향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 스펙트럼(빨/주/노/초/파/남/보)이 수면을 통과하고 굴절, 산란하게 되는데 가장 시인성이 좋은것이 빨강이겠죠?

즉, 수심이 깊어져도 시인성이 가장 좋은것은 빨강이라는 말이 됩니다.

반대로 깊은 물속에서 바닥까지는 빛의 양이 적게 도달하므로 바닥지형과 가장 자연스러운 색상은

보라색 계통이 가깝겠죠?

2. 광어 이해하기

① 식생

- 광어는 모래+자갈+바위조각 등 어느 한가지만 해당되도 식생합니다.

대부분 모래만으로 이루어진 지형에서 보다 많은 빈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 광어는 물살이 있는곳을 좋아합니다.

곳부리 지형에는 침식이 일어나는 지형과 퇴적이 일어나는 지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조류가 복잡하게 흐른다는 말이겠죠.

- 광어는 주간에 낚시가 이루어지며 야간에는 입질확률이 극히 떨어지고 중설물~ 초들물에 입질이 좋습니다.

- 뜨거운 한 낮보다는 동트기전 / 일몰전에 입질이 좋습니다.

이것은 우럭/놀래미도 마찬가지 입니다.

- 광어도 5월을 전후하여 산란을 하게되며 40cm까지 자랄려면 3년이 넘어야 합니다.

1년에 10센치 정도 자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산란 후에는 수심 20m전후하여 식생하며 11월이 지나면 남해안 깊은 바다로 회유하게 됩니다.

② 공략

- 광어는 이빨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절대 손으로 주둥이에 손가락을 넣지 마시기 바라며, 반드시 포셉(집게)을 이용하시고

바늘 또한 바늘빼기 집게를 이용하여 빼시기 바랍니다.

- 광어는 보통 1/2온스 채비에 4~5인치 웜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모래바닥지형을 많이 노리게되며 라인은 슬림을 감안하여 나이론3호정도를 써주시면 좋고
개인적으로 합사 2호에 쇼크리더를 3미터정도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릴링 방법은 충분한 카운트로 바닥에 채비를 가라안히고 서서히 끌어주시면 됩니다.
광어는 홉핑 동작이나 폴링 동작에 입질이 빈도가 높아 집니다.

- 서서히 끌어준다 함은 1~2초에 핸들 한바퀴정도 입니다.

- 광어의 입질은 한방에 이루어집니다.

입질을 느꼈다면 이미 웜과 지그헤드바늘은 목구멍 깊이 박히게 됩니다.

힘찬 챔질(or 더블 훅킹)로 바늘을 확실하게 꽂히게 해야 합니다.^^

- 광어는 바닥에서 쉽게 띄워집니다.

우력과는 달리 온몸으로 물결치듯 움직이므로 조류도 많이 받고 파이팅 시에는 강한 손맛의 전율을 느낍니다.

- 수면에 다달한 광어는 수면을 차고 좌우로 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로드워킹을 통해 랜딩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밀려오는 파도에 광어를 실어서 갯바위로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채비셋팅이 튼튼하다면 들어뽕도 좋습니다.(광어를 주대상어종으로 한다면 뜰채를 준비하심이)

- 배쪽이 온통 하얗기만 하다면 자연산이며, 갈색 반점이 있다면 양식산에서 탈출한 놈이던가

어민들의 치어방류에서 살아남아 자연상태에서 자란놈들입니다.

맛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

에깅낚시채비법



엿그제 동해남부 모 어항에서 밤루어낚시중에
오징어가 유유히 유영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조만간 에깅낚기도 활발해지겠죠...^^*



매듭법 1 : 더블클린치노트

매듭법 2 : 얼브라이트노트

매듭법 3 : 비미니트위스트노트

































[스피너로 다양한 어종을...](#) | [루어랑 장비랑](#)

스피너는 매우 매력적인 루어입니다.

그냥 봐도 예쁘지만, 물고기들이 앞다투어 달려드는 모습은 낚시만큼이나 매력적입니다.



주로 강가나 계곡에서 썩지를 주로 잡는데 사용되고 있지만, 대물 피라미, 대물 갈겨니를 비롯하여 꼬리, 쏘가리등도 잘잡히며, 겨울철 승어 낚시에도 높은 조황을 올려 줍니다.

외국에서는 배스낚시에도 스피너베이트처럼 스피너가 자주 쓰이며, 개인적으로 테스트해본 결과도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바다에서 시도되는 경우가 매우 적는데, 이유는, 아마도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라 비거리가 멀리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갯바위에 걸리기라도 하면,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이유를 떠나서, "과연 스피너가 바다에서 되겠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 역시 많습디다만, 스피너는 바다에서도 매우 뛰어난 조과를 보여줍니다.



다양한 종류와 크기가 있습니다.

밑밥에 달려든 학꽂치는 펜드마틴 스타일의 작은 스피너를 쓰면 훅킹이 되는데, 미리 삼발이 훅에서 바늘 두개를 니퍼로 잘라내시면 훅킹이 훨씬 더 잘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입이 크지않아 삼발이 훅을 다 물고 입을 다물기가 어렵고, 제대로 훅킹이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농어는 배스나 농어, 연어등을 상대로 나온 대형 스피너가 있습니다.

우력은 말할 나위 없이 잘 물고 나옵니다.

특히 야간에 중, 상층으로 끌어 주어도, 파장이 심하기 때문에 떠서 잘 물고 나옵니다.

물론, 저렴한 원+지그헤드 채비에도 잘 물기 때문에 큰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자신이 생각한 미끼를 던져보고, 변형도 해 보고, 연구한 뒤에 잡은 물고기를 바라보는 기쁨은 정말 대단합니다.

스스로 미끼를 묶어 만드는데(타잉) 플라이낚시의 묘미도 그런데에서 있을 듯 합니다.

바다에서 쓰고 나시면, 꼭 빠른 시간내에 깨끗한 물로 스피너를 씻어 주세요



펜더마틴 스타일 스피너

(펜더마틴사의 스피너는 조금 고가이기 때문에, 거의 절반 값에 가까운 제품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처음하는 루어낚시-장비](#) | [처음하는 루어낚시](#)

워킹낚시, 또는 스포츠 피싱이라 불리는 낚시이기에 루어낚시 장비는 간편한게 장점입니다.

(멋쥔 루어낚시~^^)

장비는 여러가지가 필요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지만, 예산에 따라 기본적인 것부터 구매하시면 됩니다.

비싼 장비로 꼭 많이 잡는 것은 아니지만, 편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알고 구입하시면 저렴하게 좋은 제품을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 루어 낚시를 할때 꼭 필요한 장비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비별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루어 낚시대- 예전에는 바다에서도 쏘가리나 배스용으로 나온 6.6피트(1피트=약30.5Cm)정도를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대형광어/농어등을 노린 8~13피트까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범용으로 7~8피트 정도 되는 루어대 1개만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연안 우럭등을 잡기위한 6피트대와 농어/광어를 위한 9피트., 운동겸 원투가 필요할 때는 사용하는 11피트 3개를 주로 갖고 다닙니다.

처음 루어하시는 분은 6.6피트 정도 되는 미들파이트대를 권해 드립니다.

가격은 몇 천원에서 수 십만원까지 다양하게 있지만, 3~5만원대 정도면 쓸만한 것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릴-보통 1000~4000번까지의 릴을 사용하시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00~2500번대의 릴을 구입하시면, 범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루어대와 마찬가지로 천차만별이지만, 50,000~160,000원 정도면, 훌륭한 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하실 때에는 1~2만원짜리 릴도 괜찮습니다만, 쉽게 고장나 버리는 등의 단점은 있습니다.

(저 역시 릴이 한 10개정도 있는데, 4년전에 구입한 15000원짜리 릴, 관리 잘해서 아직도 괜찮습니다. 주로 초보분이랑 같이 갈때 사용하라고 빌려 드립니다.^^*)

낚시줄-낚시줄은 합사를 권장해 드리지만, 일반 모노라인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000원대에 1000M이상을 주는 매직터치등의 상품보다는, 600M에 12,000원 정도 하는 XL스트롱 라인이 처음 사용하실 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늘어남도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굵기에 비해서 강한것이 특징입니다.

지그헤드- 바다에서 지그헤드는 보통 1/8, 1/5, 1/4, 3/8, 1/2 정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중에 1/8, 1/4, 3/8 정도는 갖고 계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통 10개에 1,000원대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웜- '루어랑 장비랑,란에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구입하시면 무리 없으시리라 생각 됩니다.

보통 2인치 웜 몇 종류와 3인치웜 몇 종류만 있으면 되는데, 많이 안 구입하실 예정이시면, 대체적으로 조황이 좋은 흰색웜등은 꼭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핀- 스펠은 크기별로 은색으로 몇 개는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당 200~400원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루어 대상어가 거의 다 잘 잡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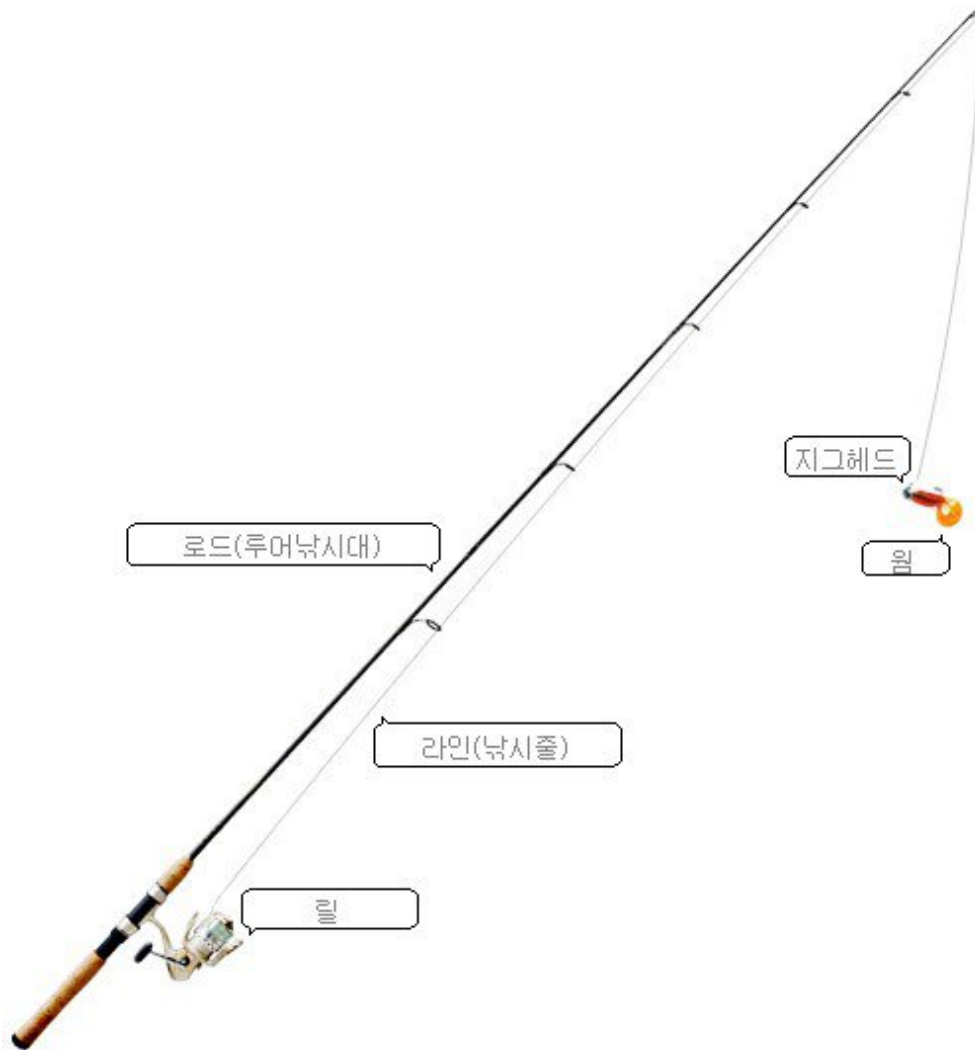
위 6종류만 갖고 계시면, 일단 루어낚시를 하시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물고기를 잡았을 때, 떼어 놓는 께미,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포셉, 작은 칼 종류와 여러가지 도구를 담을 수 있는 조끼나 가방등

은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모두 개인적인 경험과 지인들의 이야기등을 적은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루어낚시 루어 장비 개요도](#) | [처음하는 루어낚시](#)



가끔 처음 루어낚시를 하시는 분이 장비를 어떻게 연결하냐고 물어 보십니다.

너무나 당연한걸 묻는 것에 의아 하기도 했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니 저두 처음에 가장 궁금했던 내용이었습니니다.

루어장비는 위 그림처럼 정말 간단하고 간편합니다.

릴을 로드 의 시트에 연결하고 낚시줄을 로드 가이드에 넣어 빼고...맨 끝에 지그헤드를 묶은 뒤 웜을 끼우기만 하면 끝납니다.

스폰인 경우는 지그헤드를 연결하지말고 바로 스폰을 묶으시면 됩니다.

멀리 캐스팅하고 어종에 따라, 천천히 또는 빠르게 감으시면 물고기가 잡힙니다.

(처음하는 루어낚시란의 어종별 잡는 법 참조)

루어낚시의 가장 큰 장점중에 하나는 타낚시에 비해서 낚시장비를 내려놓고 연결하구 낚시를 하는 시간까지 보통 1분~3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대물을 잡기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간편한 장비로 인해 이동도 편리하고, 잠깐 동안만 해볼 수도 있는 편리한 낚시입니다.



(4269의

투 루프 - 이것은 주요한 선을 위해 높은 병력 루프 이다.

주요한 사용 주요한 선에 조각기를 붙이기를 위해 루프를 형성한것을 이다 이다 .

모 든 매듭에것과 같이 단단히 당기기전에 선을 기름을 바른것을 생각하십시오



(7304의

플랑드르 눈 - 다 붙이는 최선 방법 은 물가 철사에 걸이를 이다.

그것의 looseness 봄 행동하고 crimped sleeve떨어져 압력을 가지고 간다.



Grinner 매듭 - 이것은 더 안전하게 clinched 다 목적 매듭보다는 그것 이다 관계되는 혈액 매듭 이다.

주요한 line.Assist에 아래적으로 기초에 당기기으로 서 사용 붙이고 있다 swivels, 유혹,및 걸이를 그것의 대형 이 다.



Palomar 매듭 - 매듭을 일렬로 세우 는 다목적 걸이. 아주 빨리 맨위하여와 합당하게 강한



(7601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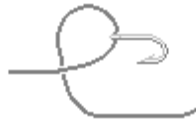
Uni 매듭 - 이 다재다능한 매듭은 걸 이, swivels, 고리및 유혹을연결하기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사 용될 수 있다.

그것의 주요한 이점은 사실상적으로 90% 끊 어지는 긴장을 유지한다 고 이다. 연습다음에의 암흑안에 조차 매게 쉬운.



(7476의

걸이 Snell - 위 아래적으로 돈 눈에 걸이에 선을 붙이기의 빠르고그리고 간단한 방법
양쪽 최후가 눈에 통과해야 하는 있을 때 다만의 깡통은 선의 자유로운 길이에 사용된다



(6349의

엄지 매듭 - 무거 운 선에 걸이와 고리를 붙이기를 위해 유용한매듭. 연속되 너 의 엄지떨어져 루프를 편해지는 얼마간 연습을 요구한 .

[루어 용어 요것만은 알아두자!-0-크어어~ | 루어의 모든것!study!](#)

- * **꽃부리** : 바다나 강, 호수등으로 길게 뻗어진 육지의 끝부분
- * **노싱커(no sinker)** : 웜과 바늘만을 라인에 묶는 채비법
- * **다운샷리그(down shot rig)**: 웜과 바늘아래(30cm ~ 50cm)에 봉돌을 다는 채비법
- * **두들링(doodling)** : 싱커와 비드(유리구슬)의 진동으로 생기는 효과음으로 물고기를 유혹하는 액션
- * **드래그(drag)** : 루어를 물속 바닥으로 질질끄는 액션
- * **드랙(drag)** : 큰고기가 물렸을때 릴에 강한힘이 전달되면 풀려나가도록 해둔 릴의 부속장치
- * **래틀(rattle)** : 쇠구슬등으로 소리를 내는 루어속 장치
- * **랜딩(landing)** : 물고기를 잡아 땅까지 끌어내는 것
- * **렁커(lunker)** : 큰 물고기, 큰 배스를 지칭
- * **로드(rod)** : 낚시대
- * **루어(lure)** : 쇠조각,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진 가짜미끼
- * **리그(rig)** : 채비
- * **리액션바이트(reaction bite)** : 반사적 입질
- * **리트리브(retrieve)** : 릴로 낚시줄을 감아들이는것
- * **릴리즈(release)** : 잡은 고기를 놓아주는 것
- * **립(lip)** : 미노우의 입술, 주로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있고, 크기에 따라 미노우가 유명하는 수심층이 달라짐.
- * **미노우(minnow)** : 작은 물고기, 잔챙이를 흉내낸 가짜 물고기 모양의 루어
- * **바텀(bottom)** : 물속의 바닥
- * **버즈베이트(buzz bait)** : 뽀로로로~ 소리를 내는 프로펠러가 달린 루어, 탐
- * **백래시(backlash)** : (베이트릴의) 줄엉킴
- * **베이트(bait)** : 미끼
- * **베이트피시(baitfish)** : 미끼가 되는 물고기
- * **베이트 캐스팅 릴**
- * **브레이크라인(break line)** : 완만하다가 급격히 수심이 깊어지는 지역
- * **블레이드(blade)** : 원형 혹은 타원형의 루어에 부착된 날개부분.
- * **비드(bead)** : 유리구슬, 웜등을 사용하는 채비에서 약간의 무게를 주거나 소리가 나게 할때 사용함.
- * **생추어리(sanctuary)** : 물고기가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물속의 장소
- * **서모클라인(thermocline)** : 물속에 수온이 급하게 변하는 층
- * **서밍(thumbing)** : 베이트릴을 캐스팅 할때 엄지손가락으로 스푼의 회전을 제어하는 동작
- * **서스펜드(suspend)** : 일정수심에 중지된 상태
- * **쇼어라인(Shoreline)** : 물과 육지가 만나는 지점, 연안
- * **숏바이트 (short bite)** : 짧은(약한) 입질
- * **쉐이킹(shaking)** : 루어를 살살 떨어주는 동작
- * **셸로우(shallow)** : 얕은 물
- * **스킵핑(skipling)** : 루어를 수면에 튀기며 캐스팅 하는 방법
- * **스쿨링(schooling)** : 고기들의 집단행동
- * **스테디 리트리브(steady retrieve)** : 일정한 속도로 라인을 감아들이는 동작
- * **스트럭처(structure)** : 물속 구조물, 수심이 깊어지는 지점, 물속 절벽지역, 물굴 등
- * **스팟(spot)** : 특정장소 혹은 특정포인트
- * **스풀(spool)** : 릴에 낚시줄이 감긴 부분
- * **스폰(spawn)** : 산란
- * **스플릿샷리그 (split shot rig)** : 웜을 끼운 낚시바늘을 낚시줄에 묶고 30-50cm정도위에 조개봉돌을 물려놓은 채비
- * **스피너베이트(spinnerbait)** : 철사를 구부려 위쪽에는 쫓기는 먹이감을 형상화한 블레이드가 돌고 아래쪽에는 그것을 쫓아가는 물고기로 보이게 한 루어
- * **스피닝 릴 (spinning reel)** : 일반적인 모양의 릴

슬랙라인(slack line) : 캐스팅후 쳐져있는 줄
싱커(sinker) : 주로 총알모양으로 생긴 볼
싱킹(sinking) : 바닥으로 가라앉는 루어 또는 동작
아이(eye) : 루어의 동그란 연결부분
액션(action) : 루어의 놀림법(호핑, 트위칭, 저킹, 웨이킹, 드래깅, 워킹더독 등)
어프로치(approach) : 루어를 장애물 같은곳에 접근시키는 것
어필(appeal) : 배스가 루어에 호감을 갖게 하는것
엣지(edge) : 물가 가장자리, 모퉁이
여울 : 강이나 바다에 물이 세차게 흐르는 지역
온스(ounce) : 무게단위. 1온스 = 28.35 그램 , 주로 루어의 무게를 이야기할때 1/2, 1/4, 1/8, 1/16 온스등으로 무게를 표시함.
옵셋훅(offset hook) : 줄매는부분이 ㄱ 자로 꺾여있는 낚시바늘
와키리그(wacky rig) : 노싱커리그의 일종으로 원의 중간에 바늘을 꿰는 채비법.
워킹더독(walking the dog) : 루어의 머리가 지그재그 좌우로 흔들여주는 펜슬베이트의 액션방법
위드가드(weed guard) :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찢솔모나 탄성이 있는 철사등을 덧댄 낚시바늘
인치(inch) : 길이단위, 1 인치 = 2.54 Cm
자라스푼 : 해돋사에서 제작 판매된 펜슬베이트의 일종
저킹(jerking) : 낚시대를 강하게 제껴주는 동작. 루어에 액션을 주는 방법 중 하나.
처거(chugger) : 포퍼와 펜슬베이트의 장점을 혼합한 루어 = 척벅(Chug bug)
캐롤라이나리그(carolina rig) : 도래 등을 30 - 50 Cm 정도 위쪽에 단후 싱커와 비드를 끼운 원낚시 채비.
캐스팅(casting) : 루어를 던지는 방법. 사이드(side casting), 오버(over casting), 언더(under casting), 스킵핑(skipping), 피칭(pitching)
탑워터(top water) : 수면, 수면에서 운용하는 루어의 총칭
태클(tackle) : 낚시대, 릴, 루어, 소품 등 낚시도구들의 총칭
턴오버(turnover) : 급격한 물속 대류현상.
텍사스리그(texas rig) : 낚시줄에 총알형 싱커와 비드를 끼운후 낚시바늘과 원을 매는 채비방법.
트레블훅(treble hook) : 세발 낚시바늘
트위칭(twitching) : 낚시대를 아래나 옆으로 툭툭 쳐주는 액션방법.
파운드(pound) : 무게단위, 1 파운드 = 453.58 그램
퍼머 : (스피닝릴의) 줄 엉킴
펜슬베이트(pencil bait) = 스틱베이트(sticbait) : 막대기 모양 혹은 물고기 모양의 물에 뜨는 루어.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워킹더독 액션을 주로 사용.
포켓(pocket) : 수초사이의 구멍
포퍼(popper) : 주둥이가 움푹 패인 탑워터루어. 짧게 끊어치면 폭폭 소리가 나며 물살을 일으킴
폴링(falling) : 루어의 자유낙하
프레셔(pressure) : 물고기의 스트레스, 압박감, 경계심
플로팅(floating) : 물에 뜨는(떠오르는) 루어,
플리핑(fliping) : 손으로 루어를 잡고, 다른한손은 낚시대를 잡은채로 탄력을 이용해 루어를 캐스팅 하는 방법
피네스(finesse) 피싱 : 작고 가는 원이나 루어로 배스를 잡는 기술
피딩타임(feeding time) : 동틀무렵 혹은 해질무렵의 먹이사냥 시간.
피칭(pitching) : 낚시줄을 늘어뜨린 후 앞뒤로 흔들어 탄력으로 루어를 던지는 캐스팅 법.
피트(feet) : 길이단위, 1 피트 = 30.48 Cm , 6.6 피트 = 201 cm (약 2미터)
험프(hump) : 물속에 움푹 솟은 곳.
헤비커버(heavy cover) : 수초나 장애물로 뻗뻗한 곳
호핑(Hopping) : 낚시대를 위쪽으로 살짝 들어주어 토끼뿔을 뛰는 듯한 액션을 연출하는 것
훅셋(hook set) : 낚시바늘을 고기에 정확히 꽂히게 하는 동작, 흔히 훅킹(hooking)이라고도 함

한번은 즐기자.

블로그 나의꿈은 아직 사라지지않았다 <http://blog.daum.net/sy66145>

저자 virus6145

발행일 2011.02.11 13:56:42

 블로그